

입 양

제 4 부

입 양



우리 소중한 친구들에게, 오늘 저녁 여기 교회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어 우리는 참 기쁩니다. 조금 덥군요, 되도록 서둘러서 곧장 메시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고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 특별 기도 요청도 드리겠습니다. 저 방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낸 편지를 받아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매님이 뇌종양이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루이빌에도 그런 분이 또 한 분 계시고; 어떤 목사님의 형제, 그분의 아버지가 심장 발작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오늘 세상에는 아픈 분들이 아주 아주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시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소서 하고 그들을 위해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개 저의 사역의 구십 오 퍼센트는 항상,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시죠, 하지만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뭐랄까 조금... 아직도 전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기도하는 사역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 교회가 위치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작동할 수 있을 만큼 질서가 잡혀 있어서, 아시겠죠. 질서 정연하게 되어야만, 그렇죠, 모든 일을 바르게 정리해야만 합니다.

몇 분 전에 뭔가가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키가 작고 연로한 퇴역 군인이시고, 두 팔 다리가 거의 총알에 맞아 떨어져 나갈 뻔했던 분이 말씀했을 때에 그랬습니다. 그는 지금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정말 군인 같은 분이십니다, 로이 로버슨이라는 분이죠, 여기 교회에서 재정을 맡고 있는 분이고 정말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시고 신사이십니다. 그 분이 거기에서 걸어오더니, “대통령도 잊지 말아 주세요, 브래넨 형제님”하고 말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았는지,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려오는데, 눈물을 흘리고 입이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볼

때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하고 말했습니다. 아시죠, 대통령은 로이와 그의 부대 대원들과 함께 같은 전투에서 싸웠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대통령과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해도, 그는 여전히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게는, 전 민주당원도 아니고 공화당원도 아닙니다. 전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전 정말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네, 그는 정말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대한 분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출마한다면, 저는 투표를 할 때 다시 그를 찍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가 백 살이어도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그를 찍겠습니다, 그를 좋아하니까요. 오늘 저녁 기도할 때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제이 티이(J.T.), 이 번 주에 자네들이, 자네와 윌러드 형제가 연 훌륭한 집회를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네. 만일 내가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갔다면, 자네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네. “좋습니다, 브래넘 형제님, 아시다시피, 어찌고저찌고.” 하지만 밖에 서서 자네가 설교하는 걸 듣는 것이 더 좋다네, 알겠나? [브래넘 형제가 웃는다-주]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Eng. p. 101²)

여러 교회에서 여러 제안들을 받았는데, 자네들이 다 원한다면, 담임 목사로 갈 준비가 되어 있다면, 훈련을 받았다면. 훈련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모든 게 결정이 된 걸로 아네. 오리건 한 곳, 워싱턴,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여러 다른 곳들로부터 요청이 있습니다. 자네들이 한 교회를 맡고 싶고 그렇다면, 바로 여기가, 출발점으로 삼기에 좋은 곳이라네, 여기가. 울부짖고 있는 혼들은 어디나 다 있습니다, 인디언 보호 구역들에 가도 되고 원하는 곳은 아무데라도 갈 수가 있다네. 우리에게 알려만 주게, 왜냐하면 난 자네들이 굳건한 신앙의 소유자임을 믿고 있기 때문이네. 좋습니다. 전 저 형제들이 그렇게 설교하는 걸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저 위쪽에 러들 형제가 있습니다. 며칠 동안 그 곳에 가서 그를 위해 집회를 열려고 합니다. 러들 형제네에 가서, 부흥 성회를 열고자 합니다. 한 때 그 형제를 여기 저기로 데리고 다니면서, 그가 그 틀에서 나와서 설교를 하게 하려고 애쓰던 생각이 납니다. 그는 너무나도 뒤로

빠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난 말도 못해요.”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 형제가 설교하는 걸 한 번 들어 보셔야 합니다. 아멘. 아시겠죠? 성령이 여러분을 붙들도록 자신을 내어놓으면 여러분이 뭘 할 수 있게 되는지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맞습니다.

유티카에 계시는 그레이엄 스넬링 형제님과 저 아래에 있는 주니어 잭슨 형제님도, 우리는 그들 모두를 우리와 함께 하는 우리의 자매 교회로 여깁니다. 우리는 모두 한데 어울립니다. 우리의 교리들이 서로 다르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들과 목표들과 교리들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하면서 함께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한 교회나 마 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곳곳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아프리카에도 있고, 인디아에도 있고, 전 세계와 전 미국에 걸쳐서. 좋은 소식을 뿌리면서, 곳곳에 교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 젊은이들이 뒤를 이어 오는 것을 봅니다, 여기 제이 티 이 파넬 형제나 윌러드 형제나 다른 형제들, 그 청년들이 뒤따라 올 때, 저는 늙어 가고 있고요. 내일이 있다면, 그들이 내일의 주인이 될 겁니다. 전 이 메시지가 사장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메시지는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전 우리가 메시지를 전할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죽을 거라고 했던 그 어린 아이가, 자매님, 오늘 하루 중 일 교회에서 그 아이를 데리고 계시는군요. 아주 좋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자매님에게 말했던 것을 계속 믿으십시오, 아시겠죠, 그 아이는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배우시는 게 즐거우셨습니까?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게 좋았습니까? [회중이 “아멘.”한다-주] 오, 저는 가르침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부터 약간의 휴식을 제공합니다. 물론, 오늘밤 우리는... 이 예배 후에, 다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오늘밤에. 우리는 항상 아무 때나 그렇게 하고, 침례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몇 분이나 제가 송전선을 따라 걷던 때를 기억하시죠? 전 늘 송전선을 따라 걸어 다녔고, 하루에 삼십 마일은 산 속을 걸어야 했습니다. 이백 팔십 마일을 걸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를 걸어다니며, 손에는 옷옷을 들고, 오, 녹초가 되어버렸고(Eng. p. 101³), 그 정글 속을 헤치며 걸어다니고, 초록색 브라이어가 살을 베곤 했었습니다. 어떤 나이트 농부를 만나면 나무 아래 앉아서 그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얘기하곤 했습니다. 그는, “어, 항상 침례를 받고 싶었소.”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계곡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탄 소리를...

저는 많은 농부들을 그 아래 계곡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습니다. 재빨리 전선에서 내려갔습니다. 맞습니다. 대개는 작업복을 입은 채로, 한 사람을 침례를 주었고, 전봇대에서 내려와서. 그 전봇대 사이에서 일을 하며 앉아 있다가; 전 가선공이기도 했습니다, 전선주 사이에서 일을 하면서, 그에게 주님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는, “언젠가는 자네 교회에 가서 침례를 받겠어.”하고 말했습니다.

² “왜 그때까지 기다리려고 그래요? 강이 바로 옆에 있고, 물도 충분히 있는데.”하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붙드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때가 적기입니다. 빌립도 말했었죠...

³ 내시가 빌립에게, “여기 물이 있으니, 무엇이 우리를 막으리요?”하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준비가 되었을 때가 적기입니다. 마귀에 그 사이에다 뭔가 썩기를 박을 기회를 가지지 못하게 하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일들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내일을 보지 못할지도 모르니까요. 저도 한 번 그런 일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배웠죠, 저에게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해야 할 일을 미뤘었는데, 그 다음 날에는 이미 늦었더군요.

⁴ 자, 정말로 전 여러분을 이렇게 오래 붙들고 있지 않으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나도 흥분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의 제 정신이

아닌 것처럼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로 기분이 좋습니다.

5 자 잠시 말씀으로 다가가기 전에 고개를 숙입니다.

6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살아 계신 하나님입니다, 늘 살아 계십니다. 저 지는 태양은, 다니엘이 본 태양과 똑같은 태양입니다, 예레미야가 봤던, 아담이 봤던, 예수께서 보셨던 태양입니다. 그들이 살던, 걸어 다니던 동일한 세상이고,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7 오늘 저녁에 많은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뇌종양이 있는 남자분이 한 분 계시고, 어떤 자매도 똑같은 병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그 병에 대해서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그 종양은 악성이 되었고,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의사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밤 우리는 조그만 물매를 가지고 아버지의 양우리 안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 어린 양을 찾아갑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를 악성 종양이라는 사자를 죽이고, 안전하게 그들을 양우리로 데려 올 수 있도록 방향을 인도하소서.

8 우리는 오늘 밤 우리의 멋진 대통령, 형제, 우리의 드와이트 아이젠 하워를 기억합니다. 그는 이 나라를 지도하고 있고, 주님, 우리가 전쟁에 휘말리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한국 전쟁이 되도록 종결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병사들의 어머니들에게(Eng. p. 102) 아들들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은, “내가 그 일을 하려면, 난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노력이야 기울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만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하고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은 대통령과 함께 하셨고, 이제 그 일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처음부터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까요? 하나님, 주님께서 대통령을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 용감한 혼에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차기 대통령이 될 지도자를 우리를 위해서 택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예정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9 하지만 오늘 밤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분은, 우리의 국정 일들이 아니고, 끝이 없을 왕국을 세우려고 오실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

신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무기들을 쌓아 두고, 나팔이 울릴 것이고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겁니다. 그들은 포도나 무를 심을 것이고 그 열매를 먹을 겁니다. 그들은 집을 짓고, 그 집에 살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이후에는 결코 문제가 없을 겁니다.

¹⁰ 말씀으로 다가가는 우리들을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는 제가 여기 이 성경에서 말씀을 다가가는 이유를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를 원하신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건 신성한 뜻이고, 그건 주님의 순서 가운데 드는 일이고, 그건... 시대의 순서입니다, 위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찾고 전시(戰時)에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형제가 얼마 전에 주님께 기도할 때 말했듯이, “오, 주님,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오래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네, 아버지, 우리가 전열을 갖추 수 있게 해 주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우리를 세워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일에 착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아멘.

¹¹ 저는 오늘 오후에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루이빌에 있는 유명한 한 의사와 그의 간호사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행하신 영광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들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와서 제 방에서 오후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들어와서, 제 방에 들렸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좀 딱딱하고, 아시죠, 좀 강경한, 진짜 장로교인인데,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방을 나섰습니다. 오, 나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의사들의 사무실에서, 간호사 실에서도. 노튼 병원에 있는 간호사 중 제가 성령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건지 물어보지 않은 간호사는 한 명도 없다고 봅니다. 어느 곳에서건, 제가 얘기를 걸지 않는 의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¹² 그들에게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형제님. 여기서 그 일이 얼마나 어렵게 여겨진다고 해도,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숨을 쉬고 거기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시면, 여러분은 했을 걸 하고 후회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합시다. 지금이 그 일을 할 때입니다. 오, 그들은 찬성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약간 화를 내며 논박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부러 그

러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그리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은 괜찮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시비를 걸면, 명심하세요, 그들은 정말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어쩌면 다른 것을 배웠었고 그걸 고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들과 함께 언쟁을 벌이지 마십시오, 아무 하고도 논쟁하지 마시고, 그저 그들을 사랑하시고 말씀 안에 들어오도록 인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Eng. p. 103)

¹³ 9절까지는 본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3장까지 보려면 아직 멀었죠, 안 그래요? 이 시간들은 제게는 바위 속에 들어 있는 꿀처럼 맛있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던 것은,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다시 배경을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자, 네빌 형제님, 제가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계속 말하고 있으면 절 좀 당겨서 제가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밤에. 전 제단으로 회심자들을 부를 겁니다. 제가... 이것을 끝내고 나머지는 그냥 읽고만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¹⁴ 하지만 이 시간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위치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우연히 걸려 들어간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어딘가 여러분이 공을 세워 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어서 어느 날 밤 교회에 갔다가, 어떤 가난한 형제가 여러분을 제단 앞으로 인도했던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에 예정해 두셨던 겁니다. 여러분이 그 날에 거기에 가게 되면, 당연한 일... 이십 사 장로들이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내려놓은 것도 당연하죠, 모두들 자기 면류관을 내려놓고, 모두들 엎드렸습니다, 그들이 할 말은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어떤 목사나, 어떤 장로나, 어떤 누구도 말이죠. 모든 찬미가 어린 양에게로 돌려집니다! 그 날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모으실 겁니다. 오, 우리가 만일 그들이 십자가에 못박았던 분이 누구였는지를 알고 알아봤다면. 이제...

¹⁵ 8절에서 시작해서 약간의 배경을 알아보시다.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그는 모든 지혜와 총명(신중함)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16 “그의 뜻의 신비들.” 우리가 그것을 끝 부분에서 알아본 것이 생각나시죠? 오늘 아침 여기 계셨던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어디 좀 봅시다. 우리가 그것을 하다가, “그의 뜻의 신비.” 자, 그건 단순히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신비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신비를 찾아야만 합니다.

17 어떻게 알아냈죠? 바울은, 그건 바울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아무에게도, 혈육에게 의논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학교나 신학교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에게 계시되어졌습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불기둥 같은 빛 가운데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붙렸던 분. 그래서 바울은 아라비아로 갔고, 거기서 삼 년 동안 거했습니다. 오, 상당한 기간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이건 형제님? 바울이 거기 아라비아에서 삼 년을 거하면서, 어딘가에서 조그마한 건물물을 세내어 생각에 잠겨 거닐곤 했을 겁니다, 구약의 두루마리들을 들고는. 그들은 신약은 없었습니다; 바울이 대부분의 신약을 썼습니다. 이 구약 두루마리들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예정해 두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고, 이 희생제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생명의 나무로 가는 권리를 가지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은 이미 의롭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자들을, 하나님은 이미 영화롭게 하셨습니까.(Eng. p. 104) 하나님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우리를 아들로 입양됨에 예정해 두셨습니다. 이제 창조물 전체가,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 전 바울이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을 상상해 봅시다. 전 바울과 함께 그때 그곳에 있었다면 좋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18 자,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신비를 알리셨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한 뒤 그 말씀이 어떻게 보이게 되는지 보십시오. 오늘 오후에, 저는, 한 삼십 분 정도 공부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볼 시간이 말이지요; 아니 그 절반쯤 밖에 없었는지도 모르지요, 중간 시간에 십 오 분 정도밖에. 저는 뛰어들어가, “신비라, 얼마나 신비스러운가!”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구절은 절 구약으로 이끌었고, 다음에는 다시 신약을 보게 했습니다; 뭔가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주의 강림의 신비를 보고, 주의 뜻의 신비를 보고, 우리가 함께 앉아 있는 것의 신비도 보았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그건 어느 신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그건 신비입니다. 여러분은 교육이나 신학으로 그 신비를 알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들의 표명을 기다리면서, 창세 이후로 감추어져있던 신비입니다.

19 지금 이 때말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표명되어지게 되어 있는 때가 언제 있었는지 형제님, 자매님 말씀해 보십시오. 역사상 어느 때에, 모든 자연을 구원할 때를 표명하게 되어 있는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자연, 자연 자체도 지금 신음하며 그 표명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속죄 제물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성령이 피부어지기 전에는, 구약의 모든 것과, 그 아래 모든 것이 있기 전에는, 표명들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갖추어졌고 머릿돌에까지 이르렀고 형태를 이루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표명들로 다시 돌아왔으며,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가 함께 연합할 정도가 될 만큼 그들의 사역이 너무나도 그리스도의 사역과 비슷해질 때까지.

20 피라미드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신 분? 여기 계신 한 여자분이 손을 들으셨습니다. 좋습니다.

21 하나님은 세 가지의 성경을 쓰셨습니다. 하나는 하늘에 쓴 십이궁(十二宮)이고, 그게 첫 번째 성경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계심을 깨닫기 위해서 위를 쳐다봐야만 했습니다. 십이궁을 따라가 보세요, 한 번이라도 연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십이궁은 각 시대를 알려 주는데, 게(cancer) 자리까지도. 그건 처음에,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알려 줍니다. 십이궁에서 제일 처음 자리는 뭐죠? 처녀궁입니다. 마지막 자리는 뭐죠? 리오 궁 사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그 모든 것

이 십이궁 안에 쓰여 있습니다.

²² 그 다음 성경은 돌에 쓰여졌는데, “피라미드”라 불립니다. 하나님은 피라미드 안에 기록했습니다. 피라미드를 공부해보면, 고대 역사와 전쟁들을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피라미드가 노아의 홍수로 파멸되기 전에 지어졌는지 보십시오(Eng. p. 105)

²³ 세 번째 성경은 종이에 쓴 성경입니다, 대단히 영리하고 지적인 세상이 올 것에 대비한 거죠. 자, 하나님이 시대를 통해서 움직이듯이, 우리는 사자인 리오 궁에 있습니다. 우리는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에, 마지막 장에 와 있습니다. 과학은 우리가 자정 삼분 전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 우리가 어느 지점에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²⁴ 보십시오, 피라미드를 예로 들어봅시다, 그게 쉬우니까. 그건 마치 트라이앵글처럼 연관이 있습니다.

²⁵ 우리가 여기 아래 초대 교회 시대에서 시작했을 때, 루터 시대의 종교 개혁 이후에, 그 당시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런 말은 생사를 좌우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핍박을 당하며... 매 시대에, 각 시대를 거치면서 보면,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모든 자는 핍박을 당하리라.” 루터 시대에, “루터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광신자로 간주되었고, 사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사람들은 루터교인들을 나무 기둥에 묶어서 죽이고, 화형에 처하고, 엄청난 핍박을 가했습니다.

²⁶ 그 다음에 교회는 좁아집니다, 피라미드가 그런 것처럼. 다음에는 은혜의 다음 단계인 성화로 들어갑니다. 웨슬리 시대에, 웨슬리는 영국 국교회에 대항하며 성화를 가르쳤습니다. 그건 다시 소수의 무리로 들어가고, 그러면 그들은 광신자 무리들이라고 불렸습니다.

²⁷ 전에 감리교인이셨던 분들, 아니면 감리교회와 연관이 있었던 분들

이 여기 몇 분이나 계시죠? 절반쯤 되는군요. 여러분 한 때 감리교가 성령을 가졌을 뻔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전 감리교회들에 가서 그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고 사람들이 그들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부채질을 해 주곤 하는 것을 봤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못하게 하려고, 맞습니다. 자, 그건 사실입니다. 켄터키 주 산이 있는 곳에 감리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전에도 감리교인들이 있었고, 침례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뭔가를 붙들 때까지 제단으로 내려가 서로의 등을 두들기곤 했습니다. 우리는 지내오면서, 우리는 그 이후에 좀 달라졌습니다.

²⁸ 하지만 여러분은 올라오면서 교적부에 이름을 적고 “난 감리교인이야”하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소금뿌리는 통에 물을 넣어서 여러분에게 물을 조금 뿌리고 그게 다입니다. 데이트를 하고, 짧은 바지를 입고, 화장을 하고, 경마에 열중하고, 투기를 하고, 노름을 하고, 슬롯 머신에 빠지고, 등등 그러면서도, 여전히 훌륭한 감리교인이십니다, 아시겠죠. 그건 감리교인이 아닙니다. 그건 그저 교회나 왔다갔다하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침례교인도 마찬가지로, 장로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²⁹ 데이빗 뒤폴리시스가 말했었죠, “손주들, 하나님은 손주들이 없다.”고. 하나님은 결코 손주가 없으십니다. 아들들은 있어도 손주들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오순절 교인이거나 침례교인이었기 때문에, 감리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아니면 오순절 교회나 침례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 여러분은 손자인 겁니다. 그들은 아들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손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같이 손자는 없습니다. 교회는 손주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하지만-...하나님은 손주가 없습니다.(Eng. p. 106)

³⁰ 자, 보세요, 쪽 내려오다 보면, 교회는 소수의 무리가 되죠. 오순절 시대가 들어옵니다. 그것은 정말 많은 돌출부위를 잘라냅니다. 그게 어떤 일을 했는데요? 감리교와 루터교를 다 뒤에 남겨두었습니다.

³¹ 이제 성령은 오순절 시대로부터 빠져나와 앞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죠? 그들은 조직을 만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회요, 우

리는 일신교요. 우리는 이신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파요. 우리는 이 거요, 저거요. 우리에게 속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교적부에 이름을 적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하고 말합니다. 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전 여러분이 침례교인이든지, 감리교인이든지, 장로교인이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책에 이름을 적어놓으셨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그 책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에 예정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을 부르실 겁니다.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오리라.”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도,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파는 여러분에게 하나도 해 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많은 훼방을 놓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달리 다른 일은 절대로 해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을 신자들과 불신자들 무리 속에 섞어놓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렇겠죠, 하늘에서도 그걸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므로, 그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파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를 쳐다보십시오, 그분이 바라봐야 할 분이니까요.

³²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되는... 그들은... 몇 분이나... 여기 계시는 여자가 분이 피라미드에 대해서 공부하셨다고 손을 들으신 것으로 아는데요. 아시다시피, 피라미드에는 꼭지가 씌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꼭대기에 모자돌(capstone)이 없습니다. 그들은 결코, 그것을 찾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모자돌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모릅니다. 왜죠? 왜 모자돌이 피라미드에, 머릿돌이 그 꼭대기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오셨을 때 배척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부당한 돌이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씌워질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머릿돌 주변에 있는 그 돌들은, 그 머릿돌과 완전히 딱 들어맞는 돌이어야 했을 겁니다. 머릿돌과 딱 연합하고 모든 면으로 들어맞는 돌이어야 했을 겁니다. 피라미드는 너무나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돌들 사이에 면도날도 끼울 수 없을 정도입니다. 너무나 훌륭한 석공술입니다. 어떤 돌은 수백 톤의 무게가 나가는데 공중에 떠올려져 있고, 너무나도 완벽하게 조합되어 있습니다.

³³ 하나님도 그의 교회를 그런 식으로 이끄십니다. 우리는 완전히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어, 옛날 루

터교인들은 아무 것도 가진 게 없었어.”하고 말할 겁니다. 그런 소리는 믿지 마십시오. 루터교인들도 나머지 사람들이 부활 때에 나올 것처럼 부활 때 나올 겁니다. 침례교인들, 장로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그 부활의 때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 여기에 폭발적인 부흥 성회가 있으면 수천 명의 오순절 교인들을 구원할 거야. 그들 모두가 구원을 얻고 휴거가 있을 거야.” **잘못 아셨습니다.** 그 휴거는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 천년이라는 기간의 구원을 통해 이루어진 사람들일 겁니다,(Eng. p. 107) 육 천년 전부터. 사람은 빛이 그에게 올 때 그 빛 가운데서 행하고, 다리들을 만나면 다리들을 건넵니다. 자, 만일 그가 그 빛을 거절한다면, 그는 어둠 속에 남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한다면!

³⁴ 이제, 보십시오, 주 예수의 강림이 너무나 가까이 와서 여기 이 아래로부터 성령이...칭의(의롭게됨), 성화, 성령 침례를 지나서 머릿돌이 오는 때로까지 들어갑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함께 연합할 수 있을 만큼, 동일한 성령이죠, 너무나 완벽하게 그리스도와 같아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 영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행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일들을 행하게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그도 하리라.” 예수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 가지게 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삶과 똑같은 사역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 사역은 무엇을 전하죠?** 주의 강림입니다.

³⁵ 오늘 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시고, 흐루시초프의 발언을 보십시오, 이 모든 다른 커다란 일들, 현재의 세계의 갈등들, 어느 때라도, 몇 초 내이라도 가루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만일 그게, 우리는 그게 아주 가깝다는 걸 압니다. 신문을 읽거나 라디오를 청취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일이 가까이에 있음을 알 겁니다. 어,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의 교회를 데리러 오신다는 사실어요. 그러니 주 예수의 강림이 얼마나 가까울까요? 어쩌면 오늘 밤 이 집회가 끝나기 전일 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사실입니다.

³⁶ 교회가 와서 움직이는 걸 잘 보십시오. 역사를 공부하는 역사가들이 계시다면 이것을 잘 들으십시오. 카톨릭 교회로부터 아주 신선하게 나오는 칭의 하에 있는 루터 교회를 보세요, 어떻게 움직이나 보세요. 그 다음엔 웨슬리가 좀 더 가까이 와서, 성화로 들어가고, 성경으로 더욱 엮어집니다. 그 사이를 잘 보세요, 웨슬리.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건 오순절 시대였습니다. 오순절 시대는 은사들의, 영적인 은사들의 회복이었습니다. 자, 그 시대가 머릿돌로까지 이르는 걸 보십시오. 제가 하는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주의 강림, 알려진. 하나님과 모든 창조물들은 교회가 위치적으로 자기 자리를 찾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³⁷ 오늘날의 문제는, 저는... 제가 만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침대차에 싣고 갈 때, 우리는... 저는 종합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로 가는 사람들이라면, 선교사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검진을 받을 때, 그들은 그 방에서 절 싣고 나오면서, 전 그것을 마셔서... 제가 보기에는 동그란 빵처럼 보였습니다, 식사하는 거나 그런 거, 어쨌든 전 그걸 마셨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앉아서 삼십 분 정도 기다리고 그게 위(胃)에서 밖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았습니다. 건너편을 보았는데, 죽음을 앞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그 여자분은... 팔다리가 앙상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남자, 저 남자를 지나서, 이 남자 저 남자를 지나서(Eng. p. 108)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 여자가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 여자분은 너무나 불쌍해 보였고 곧 죽을 것 같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을 때, 저는 “부인, 실례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처음 뵙겠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오, 그 여자분은 굉장히 아팠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하고 물었습니다.

³⁸ 그녀는, “투산에 사는 딸을 찾아갔었어요. 그런데 병이 났고, 의사들은 원인을 찾지 못하겠대요.”하고 말했습니다.

³⁹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 복음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돌아가신다고 하면 가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하

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저는 어느 어느 교회에 다녀요.”하고 말했습니다.

40 저는, “제가 드린 질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주님이 부르시면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하고 물었습니다. 그 여자분은 제가 뭘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시겠죠? 오, 세상은 너무나도 가련한 상태에 있습니다!

41 “우리에게 그의 뜻의 신비들을 알려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뭘 좀 읽어드리겠습니까. 제가 읽은 말씀이... 다 같이 “그분의 뜻의 신비”로 펴봅시다. 잠시 여기서 히브리서를 펴 봅시다, 히브리서 7장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곳에 함께 앉아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기분을 아주 좋게 만드는 구절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7장.

이 멜키세덱은 (자 잘 보세요)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42 자 뭐가 신비죠?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이걸 잘 들어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니까, “그분의 뜻의 신비를 알리고, 아는” 이 멜키세덱이 누구죠? 성경을 아직도 넘기고 있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잠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했던 똑같은 사람이죠.

이 멜키세덱은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러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를 축복해 주었던 이라.

아브라함이 전체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드렸더니,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살렘 왕이니,(이 사람이 누구라구요?) 곧 화평의 왕이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계보도 없고 시작
한 날과 생의 끝도 없으니...

⁴³ 이 사람이 누구였죠? 그가 누구였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죽을 날도 없었던 그 사람. 그가 아브라함이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데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하고 있었죠? 아브라함은 잃어버린 형제인 롯을 구하려고, 다시 찾아오려고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왕들을 죽였습니다; 그 왕들은 살육하; 열명인가 열 다섯 명의 왕들과 그들의 왕국들이. 하지만 아브라함은(Eng. p. 109) 종들을 무장시키고는 롯을 찾으러 추격했고, 밤에 자신은 따로 있었고, 아시겠죠, 밤에 롯을 붙들었습니다. 오, 형제님, 우리는 지금 어둠 가운데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빛은 복음의 빛뿐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따로 있다가 롯을 붙들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전쟁이 끝난 후에였습니다!

⁴⁴ 창세기 14장으로 잠시 가서 이야기를 좀 더 분명하게 알아봅시다. 여기 창세기로 갑시다, 사... 14장인 것 같은데요, 창세기 14장. 네, 창세기 14:18을 봅시다. 그보다 조금 앞부분부터 시작합니다. 18절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4:18, “멜키세덱이...” 자, 그건 아브라함이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돌아오, 돌아오는 길에, 롯을 찾고, 그들이 데려갔던 모든 사람들을 찾아 가지고 오는 길이었습시다. 모두를!

⁴⁵ 다윗처럼, 가서... 다윗이 어떻게 했죠? 조그마한 물매를 가지고 나가서, 그 사자의 입에서 이 조그마한 어린 양을 붙들었습니다. 물매를 생각해 보세요, 어린 양을 구하러 나가는 걸. 세상에 누가 그런 일을 하려 들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할지 제게 말해 보십시오, 손을 들어 보십시오. 곧바로 전 여러분이 잘못 생각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제 손도 드는 것을 여러분은 보지 못할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306구경 총을 가지고 간다고 해도 어린 양을 구하러 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물매를 하나 들고, 조그마한 가죽 끈을 두 줄 달아서 만든 것을 가지고 어린 양을 구하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 자랑을 하면서 나왔을 때도,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나갔고, “하늘의 하나님은 나로 사자 입에서, 곰의 입에서 어린 양을 구출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다윗은 물매질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나갔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을 찾아오셨던 분이셨습니다.

⁴⁶ 그게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도처에 하나님은 다윗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아버지의 양들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끔씩 종양이 오거나 암이 오거나 그런 것이 오고, 의사들이 손을 들면 불쑥 나옵니다. 그것은 다윗을 멈추게 하지 못할 겁니다, 그는 곧바로 조그마한 물매를 들고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갈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라.”라고 하는 물매. 의사들이 웃어도, 다른 누가 그를 비웃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사람을 구하러 나갈 것이고, 그 양을 다시 양우리로 돌아오게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손을 그에게서 떼라! 이 사자를 때려눕히고, 그 사자가 일어나면, 다윗은 사자의 갈기를 잡고는 죽였습니다; 조그만 붉은 피부를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어찌면 체중이 한 36 내지 40 킬로그램 나가는 애였을 겁니다.

⁴⁷ 잘 보십시오. 살렘 왕이고 화평의 왕인 멜키세덱은, 실제로 살렘이 그 산 건너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왕입니다, 멜키세덱은. 정말로 멜키세덱은 예루살렘의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처음에는 살렘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살렘의 뜻은 평화입니다; 처음에 살렘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불리기 전에. 멜키세덱은 예루살렘의 왕이었습니다. 의의 왕이었고, 화평의 왕이었고, 살렘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었고, 어머니도 없었고, 시작한 날도 없었고, 생의 끝도 없었고, 후손도 없었습니다. 오, 오, 오! 이 사람이 누구죠? 그를 잘 보십시오. 싸움이 끝난 뒤,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Eng. p. 110)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십시오. “멜키세덱이,” 18절, 창세기 14장입니다.

살렘 왕 멜키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을 축복하며 말하기를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람을 복 주시옵소서.

너의 원수들을 네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니, 아브람이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드리더라.

48 조금 더 읽어봅시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은 내게 돌려 주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하니,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께 내 손을 드니(아브라함이 함축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흠,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는지!)

네게 속한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이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아브람을 부자로만 들어 주었다.’고 네가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청년들이 먹었던 것과...

49 아브라함이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면서 만났을 때의 이 멜키세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비가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셨죠? 아무도... 사람들은 그분의 역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멜키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작한 때도 없었고, 죽는 때도 없고, 그러면서도 예전에 계시던 그 분은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그는 결코 시작을 한 적도 없었고, 그래서 그는 엘, 엘라, 엘로힘이 아닌 다른 것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존하고, 혼자 거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50 예수는 아버지(Father)가 있었고, 예수는 어머니(mother)가 있었습니다; 예수는 시작한 날이 있었고, 예수는 지상에서의 삶의 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었습니다, 아멘,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었습니다. 아멘. 멜키세덱이 어떤

일을 했죠? 싸움이 끝난 후, 아브라함이 자기 위치를 잡은 후에.

⁵¹ 교회가 자리를 잡은 후에, 우리는 성령에 의해, 아들로 입양됨에 부름을 받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위치를 잡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하게 하는 일, 길 끝에 서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간 후에.

⁵² 먼저, 바울은 거기서 모든 두려움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만일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면, 만일 너희가 어떤 신학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너희가 진정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어린양의 생명책에 너희의 이름을 기록하신 것이며, (Eng. p. 111)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곳들에 앉기 위하여 함께 모여 있는 것이다. 거룩한 민족, 거룩한 나라, 독특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께 영적인 제물을, 즉 그분의 이름을 찬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들을 바치고 있다.”

⁵³ 사람들이 와서는, “그 사람들은 미쳤어요.”하고 말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고,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어 보입니다. 서로 반대입니다.

⁵⁴ 그러나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는 하늘에 속한 곳들에 함께 앉아서, 영적인 제물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물을 드리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움직이시고, 죄를 분별하고 그들 사이에서 잘못된 것들을 지적해내고, 바로잡고 그것을 평평하고 고르게 만듭니다. 왜죠? 언제나 하나님의 존전에는 그 피 흘리는 희생제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⁵⁵ 자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아침에 그것을 훑어 봤습니다. 여러분은 그 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그 피에 의하여 계속 구원을 받은 상태로 지켜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은혜로 믿음을 통해,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은 위를 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보혈은 여러분의 죄들을 위해 속죄합니다. 기억하시죠, 저는, “하나님은 죄인들이 죄 짓는 것은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애초에 죄인이니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죄 짓는 것을

정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정죄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정죄함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일을 행하면,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일부러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일부러 죄를 짓는 사람은, 나가서 일부러 죄를 짓는 사람은, 아직은 그 몸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몸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는 죽었고, 그의 생명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고, 성령으로 인쳐져 있고, 마귀는 그를 찾지도 못하고, 그는 몸의 저 뒤에 숨어 있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그에게 오기도 전에 거기서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⁵⁶ 죽은 사람에게 그가 위선자라고 말하고 무슨 반응을 보이냐 보십시오. 그의 옆구리를 차면서, “이 위선자 같으니라고. 당신,”하고 말해보십시오, 그는 한 마디도 하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는 거기에 누워만 있을 겁니다.

⁵⁷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은, 여러분이 그에게 위선자라고 부르고, 뭐라고 부르든지, 그 말에 결코 발끈하지 않을 겁니다. 하는 일이 있다면, 그는 슬쩍 자리를 피해 어디로 가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아주 많이 살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들을 묻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물 안에서 장사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살아 있는 사람들을 장사합니다, 악의와 투쟁이 너무나 많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빼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아십니다. 자기 양들을 아십니다. 모든 목소리를 아십니다. 자기 자녀들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부를 수 있는지 아시고, 누구를 예정하셨는지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이런 일들을 누구에게 주셔서, 그가 자신을 그를 통해서 알리신 자들을 아십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신뢰하실 수 있고, 뭘 할지, 그들이 정확하게 하게 될 일을 아십니다.(Eng. p. 112)

⁵⁸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사탄은 어느 날 읊에

계... 어느 날 하나님에게 말씀드리기를, “종이 한 명 있으시죠.”하고 했습니다.

⁵⁹ “이 땅에 그와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도다. 그는 완전한 사람이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⁶⁰ 사탄은, “오, 그래요. 그는 모든 걸 수월하게 얻었어요. 잠시 제게 맡기시면 제가 주의 면전에다 주를 저주하도록 만들겠습니다.”하고 말했습니다.

⁶¹ 하나님은, “욥은 네 손에 있다, 하지만 그의 목숨은 가만 두어라.”하셨습니다. 아시겠죠? 사탄은 다른 일은 다 할 수 있었지만 욥의 생명은 손대지 못했습니다.

⁶² 그러나, 오, 욥은, 그 대신에... 그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데려가셨을 때, 사탄이 이런 모든 나쁜 일들이 일어나게 하고 그랬을 때, 욥이 하나님을 저주했나요? 욥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다. 그는 땅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주셨으니 주께서 가져가시나이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하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⁶³ 하나님은 자신이 욥을 신뢰하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절 신뢰할 수 있는지도 아십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건 이 아이를 배치하는 겁니다.

⁶⁴ 자, 성경에서... 전쟁이 다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우리가 다음에 행할 일은 뭐죠? 전쟁이 끝난 후에 우리는 뭘 하죠?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아셨습니까? 우리는 멜키세덱을 만납니다. 재빨리 마태복음 16:16을 펴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거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6:16. 마태 십육... 아닙니다, 틀리군요, 그렇게 가까울 수가 없죠. 26:26입니다. 오, 여기 16절,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가 아니죠. 26:26입니다, 왜냐하면 만찬이, 제가 찾던 대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

절. 자, 찾았습니다, 여기, 만찬 장면입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고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함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다. (s-i-n-s, 죄들입니다, 잘못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⁶⁵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잘 들어 보세요,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의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 날까지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⁶⁶ 뭐라고요? 멜키세덱이 아브라함이 자기 위치를 잡은 후에 했던 일과 똑같죠. 자기 종들을 제 자리에 배치하고,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멜키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싸움이 끝난 후, 다음에 우리는 주 예수와 함께 새로운 세상에서 혼인 만찬을 먹게 될 겁니다. 오,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좋습니다. (Eng. p. 113)

⁶⁷ “그의 기쁨을 따라, 그의 뜻의 신비들을,” 다시 에베소서에서 9절을 봅니다,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이는 때의 충만함의 경륜 안에서...

68 자, 우리는 그것을 이미 봤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이는 때의 충만함의 경륜 안에서...

69 자, 우리는 때의 충만함이 뭘 기다리고 있다고 배웠죠? 모든 때 (time)의 충만함, 죄가 그칠 때, 사망이 그칠 때, 질병이 그칠 때, 죄가 그칠 때, 왜곡된 모든 것들이 (그 왜곡된 것들, 마귀가 왜곡한 것이죠) 그칠 때, 시간 자체도 그치게 될 때. 잘 보십시오.

이는 때의 충만함의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
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
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70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들을 모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했듯이, 우리가 발견하는 모든 작은 보석조각들이, 이 훌륭하고 작은 것들, 여러분은 창세기에서 그 조그만 보석들을 찾아 광을 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레위기에서도, 그것들을 다 모아보면, 계시록에서 그것들은 다 모여서 예수가 될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그 하나님의 사 람들, 그 보석조각들 중 하나를 보고, 그들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는지 보십시오. “이는 그가 만물을 한 분, 즉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모으려 하심이라.”

71 자, 조금 나가서, 자 11절입니다.

...그 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72 오, “유업.” 유업을 상속받으려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남겨야만 합니다. 그렇죠? 유업! 우리는 어떤 유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유업을 제가 가지고 있었죠? 아무 유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제 이름을 기록하셨을 때 제게 유업을 남겨 주셨습니다.

⁷³ 오, “형제님, 잠깐만요. 예수님이 형제님을 위해서 돌아가셨을 때 유업을 주셨는데요.” 하고 말씀하시겠죠.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를 위해서 그 유업을 사려고 오셨습니다. 바로 다음 줄을 읽어보십시오.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 분 안에서 유업
 을 받았으니

⁷⁴ 하나님은, 창세 전에, 전 시간에 알아보았던 대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존하시고, 어떻게 그 분 안에 사랑과 그런 것이 있는지 봤었죠. 그 분 안에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속성이 있었고; 그런데 그분을 경배할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분 안에는 아버지의 속성이 있었는데, 아무도... 하나님은 혼자 계셨습니다. 그 분 안에는 구세주의 속성이 있었는데;(Eng. p. 114) 아무 것도 잃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 분 안에는 치유자의 속성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그분의 속성들입니다. 거기에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 자신이, 그분의 선하신 계획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이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데 모으려고 하셨습니다. 오,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그게 신비스러운 일인 것도 당연하죠!

⁷⁵ 보십시오, “우리를 이 유업에 예정하셨습니다.” 만일 제가 어떤 것의 적당한 유업이라면, 만일 하나님께서 제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이르시기를, “윌리엄 브래넘, 오래 전에, 창세 전에, 나는 너를 복음을 전파하라고 불렀다.” 하시면, 전 유업이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유업을. 자,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셔서 제게 그 유업을 생생하게 만드셨는데, 그 이유는 제가 그 유업을 상속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백지 상태였고, 유효한 상태였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때의 충만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적절한 때에,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의 보혈은 제가 제 유업에 갈 수 있도록 흘러주었습니다. 무엇이 되기 위해서, 어떤 유업이죠? 아들의 자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76 이젠 어쩌면 여러분을 놀라 자빠지게 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인 사람은 **아마추어 신(gods)**인 것을 아셨습니까? 몇 분이나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시죠? 성경은, 예수님은, “너희의 율법이, 율법도, 너희는 ‘신들’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만일 너희가 그들을 신이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그들이 신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지배하는 완전한 영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만물에 대해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신의 자격을 잃었고, 아들의 자리를 잃었고, 자기의 지배 영역을 잃었고, 사탄이 그것을 인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형제님, 우리는 되돌아와서 다시 그것을 인계 받을 하나님의 아들들의 표명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의 충만함을 기다리고, 피라미드가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를,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표명될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가서 (할렐루야) 사탄이 가진 모든 힘을 그에게서 빼앗을 그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사탄에게 속한 겁니다.

77 예수는 하나님에게서 나간 로고스(Logos)입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사람을 작은 신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들을, 선지자들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선지자들을 ‘신들’이라고 불렀다면...” 그리고 하나님도 직접, 그들이 신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를 하나님으로 만들고 아론은 너의 선지자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휴! 제가 종교적인 기인(奇人)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그런 일들을 보실 수 있다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신으로 만드셨습니다, 자기 지배 영역 안에서 신이 되도록. 그래서 아담의 지배 영역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해안에서 저 해안까지,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78 예수께서 오셨을 때, 죄 없으신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폭풍이 불어닥쳤을 때, 그는, “잠잠하라, 고요하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나무에게도, “아무도 너에게서 먹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9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작은 신들인 너희는, 너희가 이 산더러 ‘움직이라’고 말하고 너희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너희가 말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너희가 말한 것을 받으리라.”(Eng. p. 115)

80 창세기로, 원조로 돌아갑니다, 그게 뭐죠? 이제 세상과 자연은 신음하고, 울고 있으며,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표명을 기다리면서, 진실한, 거듭난 아들들, 충만한 아들들이 말하고, 그들의 말이 뒷받침 받을 때를. 우리는 지금 바로 그 경계에 와 있다고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산더러 말하고, 그 말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81 “형제님, 전 이리이러한 일을 원합니다, 어떠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82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아멘. 표명이 일어납니다.

83 “오, 형제님, 저기 제 곡식들이 말라가고 있어요. 그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거든요.”

84 “주의 이름으로 비를 보내 드리죠.” 그러면 비가 내릴 겁니다. 오, 기다리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표명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처음부터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배하라고 하셨습니다.

85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그의 이름으로 주었습니다, 이런 확신과 함께,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 일을 시행하리라.” 오, 파머 형제님! 하나님의 아들들의 표명들을, 위치를,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86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속한 곳에 사람들을 배치합니다. 자, 만일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면, 여호수아가 에프라임을 여기에 배치하고, ...?... 므낫세의 땅을, 이쪽 사람이 돌아와서 언쟁을 벌이고 그런다면, 어떻게 그들이 서로 잘

지내겠습니까? “나는 침례교인이야, 나는 감리교인이야, 나는 오순절교인이야, 나는 일신교야, 나는 이신교야, 나는 뭐뭐야.”하고 말하면.

⁸⁷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계십시오! 하나님은 자기의 교회를 배치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을 배치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을 볼 때까지 살게 하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거의 제 손을 만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상태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그게 제가 보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리를 걷고 있는데; 거기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누워 있다면,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하고 말할 수 있을 때를 기다립니다. 오, 하나님의 아들들의 표명들을 기다리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실 그 때를, 그들이 질병을 멈추게 할 그 때를, 그들이 암을, 질병을 멈추게 할 그 때를 말이죠.

⁸⁸ 여러분 암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사람이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그가 죽기도 전에 대머리수리들이 그에게서 살을 뜯어 먹을 때가 오리라고 말했습니다. 다가오는 그 병에 비교하면 암은 치통 썩이나 될까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날에는 그 끔찍한 일은 하나님의 인을 가진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도 금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날 가지려고 애쓰는 건, 이 끔찍한 재앙들이 치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가서 위치적으로 배치를 받는 것입니다. 오, 얼마나 좋을까요! 때의, 때의 충만함의 경륜, 유업.

...우리가 예정되어 그 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Eng. p. 116)

⁸⁹ 뭘 통해서, 우리에게 유업이 어떻게 주어졌죠? 예정을 통해서입니다. 예정은 미리아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설교자가 되도록 의탁하실 수 있음을 아셨죠? 그분의 미리아심입니다. “원하는 자도 아니요, 달리는 자도 아니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잠재력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도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날 지구가 있기 전에도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습니다. 바로 그 분입니다. 그 분은 무한

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것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⁹⁰ 그건 제게 너무나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제게 일어났던 그 일이 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곳을 생각할 때, 제가 그 즐거웠던 순간들에 거기에 서 있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이 없구나.” 어제도 없었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행복함이 조금 있다가 많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행복입니다. 오, 세상에! 오, 제가 거기 서서, “이게 뭐지?”하고 말했을 때.

⁹¹ 그 음성은, “이건 완전한 사랑이다, 네가 사랑했었고, 너를 사랑했었던 모든 것이 지금 여기서 너와 함께 있다.” 했습니다.

⁹² “그리고 예수께서 오시면 당신은 주 예수께 우리를 당신 사역의 트로피코 바칠 겁니다.” 했습니다. 저는 그 아름다운 여자들이 거기에 서서, 저를 다 붙잡고, “나의 소중한, 사랑하는 형제여!”하고 외치는 걸 봤습니다. 여기 목까지 흘러내리는 술이 많은 머리를 가진 그 남자들, 달려와 저를 붙잡고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여!”하고 말하는 것도 봤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게 무슨 의미일까?”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분은, “그들은 너의 사람들이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⁹³ 저는, “내 사람들이라고요? 브래넨 집안이 저렇게 수백만 명이나 되지는 않을텐데요.”하고 말했습니다.

⁹⁴ 그 분은, “그들은 네가 회심시킨 사람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회심시킨 사람들이다. 그들이 바로...” 말하길, “저기 서 있는 사람 보이지?”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말하길, “네가 저 여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했을 때 그녀는 구십이 넘었었다. 그래서 저렇게 ‘나의 사랑하는 형제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했습니다. 또 말하길, “그녀는 이제는 늙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걸 지나왔다. 그녀는 가장 젊은 모습이다. 그녀는 여기 서 있다. 그녀는 찬 물

을 마실 수도 없다, 그게 필요하지도 않으니까. 그녀는 누워서 잠을 잘 수도 없다, 피곤해지지 않으니까. 내일도 없고, 어제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 우리는 지금 영원 속에 살고 있다. 하지만 어느 영광스러운 날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내가 그들에게 전한 말씀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오, 형제님!

저는, “바울도 그의 무리를 데리고 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렇다.” 하고 말했습니다.

⁹⁵ 저는, “저는 바울이 말한 그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결길로 가지 않았고, 한 번도 어느 교회의 신조들이나 그런 것들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졌었습니다.”하고 말했습니다.(Eng. p. 117)

⁹⁶ 그러자 그들 모두가 일제히, “우리도 그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확실하면서 편안히 쉬고 있어요.”하고 소리쳤습니다. 말하길, “당신이 우리를 주님께 제시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 다시 땅으로 돌아갈 겁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오, 세상에!

⁹⁷ 바로 그 때 저는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침대 위에 누워 있는, 여기 늙어가고 주름이 생기고, 줄어들고, 병에 고통받는 제 몸이 보였습니다, 저는 두 손을 머리를 받히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저 것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단 말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⁹⁸ 저는 “계속 매진해라! 계속 매진해라!”하고 말하는 그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⁹⁹ 저는, “주님, 전 항상 하나님의 병고치심을 믿었습니다. 계속 믿을 겁니다. 하지만 저 혼들을 위하여 매진할 건데, 절 좀 도와 주십시오. 제가 저기에 많은 사람들을 데려... 주님, 절 살게 해 주신다면, 제가 거기에 또 다시 수 백만 명의 사람들을 거기에 데려 오겠습니다, 절 살게 해 주신다면.”하고 말했습니다.

¹⁰⁰ 피부색이나, 신조나, 국적이거나, 그들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가게 되면 그들은 다 하나가 될 것이고, 모든 경계선들은 사라질 겁니다. 오, 저는 그 여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예쁘고; 그렇게 예쁜 여자들은 한 번도 본... 긴 머리카락은 등뒤로 찰랑대고 있었습니다. 긴 치마를 입고 있었고. 맨 발이었습니다. 술 많은 머리카락을 가진 남자들도 보았습니다, 밤색 머리, 검정 머리, 온갖 다른 머리색깔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두 팔을 벌려 안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만지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심판주이시고, 지금 이 신성한 책이 열려 있습니다. 제 얼굴에 제 손을 얹으면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이 그들이 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팔을 벌려 안았고, 지금과는 다르게 그 여자들에게서 어떤 감정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고 여러분이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이 목사이든, 사제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안으면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건 정말로 사실입니다. 하지만, 형제님, 여기와 거기 사이를 지나면, 거기서는 그런 식이 아닙니다. 오, 세상에! 그건 너무나도... 오, 거기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전체가 사랑입니다. 모든 게 실제 있습니다, 형제님. 모든 게 실제 있습니다, 자매님. 거기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투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건 그저 완전함일뿐입니다. 그게 제가 얻으려고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제가 배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¹⁰¹ 저는, “주님, 저는 여기 교회에게 바로 그걸 지향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질서를 세우려고 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형제님과 자매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완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브래님 성막이나 감리교회나 침례교회에 충실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그러셔야 합니다. 하지만, 오, 친구들,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이 방언으로 말하고, 영 안에서 춤을 추고, 마귀들을 쫓아내고, 믿음으로 산들을 움직여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진짜 완전한 사랑이 그 안에 없다면 못 들어갑니다. 그 곳은 완전한... [테이프에 공백 있음-주]

...우리가 예정되어 ...유업을 받았으니(우리가 뭘 유업으로 받습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Eng. p. 118)

102 어떻게요? 모두 그걸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셨습니까? 아뇨,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먼저 이끄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말하기를...

103 저를 괴롭히는 게 그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늘 생활하던 그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지금 변화하십시오!** 제가 **주께서 그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할 때 들으십시오. 저는 한 번도 저 자신을 이렇게 불러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절 여러분의 선지자라고, 선지자라고 부르십니다. 전 세계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백만, 수백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말이죠. 저는 직간접적으로 천만 내지 천 이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아니면 더 될지도 모릅니다, 직접 얘기했습니다. 전 수십 만 가지의 환상들과 표적들과 기사들을 보았고, 그 중 한 가지도 틀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는 일들을 그대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선지자라고 주장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04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곳에 여러분을 들어가게 하는 것은 **완전한 사랑인데**, 거기에는 **완전한 사랑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보인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고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그건 그 날에는 별 가치가 없을 겁니다. 완전한 사랑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무나도 충만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십시오.

105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저의 전체적인 구조는 은혜입니

다. 많은 사람들이, “자, 내 등을 먼저 긁어 주면 나도 당신 등을 긁어 주지. 그래, 날 위해서 뭔가 해주면 나도 당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 주지.”하고 말합니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여러분의 등이 가렵다면, 여러분이 제 등을 긁어주든 안 긁어주든, 전 여러분의 등을 긁어줄 겁니다; 여러분이 제 뺨을 후려치고는, “내 등이 가려워, 등이 가렵다구,”하고 말한다면, 저는 등을 긁어줄 겁니다. 아시겠지요? 그겁니다, 뭔가를 해 주는 것. 전 행위를 믿지 않습니다. 전 행위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행위는--행위는 은혜가 자리하고 있다는 표명입니다. 전 제가 불충실하면 아내가 제게 이혼하자고 할까봐 아내에게 충실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에게 충실한 겁니다.

¹⁰⁶ 저는 복음을 안 전하면 지옥에 갈까봐 전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폭풍우가 있는 바다들을 건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비행기들을 타고, 번개가 여기 저기서 번뜩이고, 온통 난리인데, 어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아베마리아”를 외치고, 기내에서 별별 일을 다 겪는데. 그들은 안전벨트를 매고는, 조종사는, “십오분 정도만 갈 수 있는 가스가 남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게 재미있어서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허! 여러분 생각에 제가 독일계 병사들이 매일 밤 정글에서의 집회에 경호하면서 이렇게 그들의 팔을 제 몸에 두르고는 집회에 들어가게 하고 나오게 하는 것이, 성령이 기적들을 행하기 시작할 때까지.(Eng. p. 119) 공산주의자들은 밤에 일 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저를 쏘려고 겨누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재미있어서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안에 있는 무언가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나는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뿐 아니라,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올라가노라. 나는 죽으려 올라가노라. 나는 거기서 주님의 크신 뜻을 위하여 죽으려고 거기에 올라간다.”고 말했습니다. 뭔가가, 사랑이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하도록 강권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¹⁰⁷ 제가 돈을 벌려고 복음을 전했다면, 제가 그랬다면, 저는 오늘 밤 이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지 않을 겁니다, 전 그런 빚이 없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계 준 한 수백만 달러 짜리 수표들을 몇 장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분이, 한 사람이 FBI 수사관들을 보내 백 오십만 달러 수표를 보냈습니다. 저는, “돌려 줘라.”고 말했습니다. 돈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돈이 아닙니다. 전 돈을 벌려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¹⁰⁸ 사랑 때문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은, 제가 마지막으로 숨을 쉬고는, 지금부터 오 분 뒤가 될지도 모르죠, 어쩌면 두 시간 후가 될지도 모르고, 지금부터 오십 년 후가 될지도,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때가 되어서, 제가 거기에 도착하면, 전 한창 젊을 때의 모습을 한 여러분들이 달려와, “나의 사랑하는 형제여! 내 형제여!”하고 외치는 걸보고 싶습니다. 전 마음 속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전 여러분과 의견을 달리 하고 싶어서 여러분과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올바른 길에 세우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 길이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나 교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오, 세상에. 휴!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 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¹⁰⁹ 들어보세요. 몇 분 뒤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지금 잘 들어보십시오.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신뢰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분 안에서 너희도 신뢰했으니...

¹¹⁰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재킷을, 복음의 재킷을 입으십시오. 귀를 활짝 열어놓고, 잘 들으십시오. 13절을 읽겠습니다.

그 분 안에서 너희도 듣고서 신뢰했으니...
 “믿음은 뉘로 온다...” [회중이 “들음으로.”라고 대답한다-주] “...뉘 들음으로...” [“말씀.”] “누구

의 말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들은 후
에...

111 진리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성경구절을 적고 계신 분들, 요한복음 17:17입니다, 예수께서는,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112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구원은 무엇이었죠? 땅의 기초를 놓기 전에 예정되었고, (그게 맞습니까?), (Eng. p. 120) 아들로 입양됨에, 영원한 생명에 예정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온 후에, 여러분이 구원받고, 성결케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후에, 여러분들은 아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일할 수 있도록, 오, 여러분을 위치에 맞게 배치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113 그게 복음입니다. 먼저,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없애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약속의 땅을 향해 갑니다. 그 약속은 여러분의 길에서 만나는 모든 여행자들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밤 집을 나와서, 죄인이, “브래넴 성막에 가봐라지,” 하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밤에 여러분에게 그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과 그 약속의 땅 사이에는 한 가지만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무엇이죠? 성령입니다. 여호수아와 약속의 땅 사이에는 요단 강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14 그리스도의 예표인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약속의 땅이 있는 데까지 인도했고,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 그 땅을 분배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값을 치르셨고, 그들을 성령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내려보내셨고 성령이 교회를 위치적으로 질서 있게 배치하셨습니다, 각 사람, 그분의 존재의 임재로 충만시키면서. 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만물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을 이 복음의 소명까지 예정하셨는지!

115 바울은, 갈라디아서 1:8에서, “천사가 와서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진리, 복음을. 계속 읽고 그 절을 끝낼 테니까 잘 들어 보십시오.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 안에서 또 한...(잘 들으십시오) 또 너희가 그분을 믿은 후에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116 마지막 날들에, 성경은 말하길, 자 잘 보십시오, 마지막 날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인(Seal)을 가진 사람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짐승표를 가질 것입니다. 맞습니까? 몇 분이나 그 사실을 아시죠? 네, 하나님의 인이 인이라면... **하나님의 인이 성령이라면, 성령이 없으면 짐승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두 영들이 너무나 비슷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함을 받은 자라도 속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도록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결코 속일 수가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117 교회에 다니고, 주를 만나러 나갔던 열 처녀들을 아실 텐데, 다들 성결케 되었고, 다들 거룩하고, 그들 모두 성결케 된 자들입니다. 다섯 처녀는 **능장을 부렸고** 등불이 꺼지게 놔뒀습니다. 다섯 처녀들은 등에 기름이 있었습니다. “보라 신랑이 오도다!” 등에 기름이 있는 다섯 처녀는 혼인 만찬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처녀들은 밖에 남아서 울며 통곡하며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계십시오,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실 지 모르니까요. 가지고... 성경에서 기름은 무엇을 나타내죠? 성령을 나타냅니다.(Eng. p. 121)

118 자, 오늘 여러분에게, 제 칠일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말씀하신 제 칠일 안식교 예수 재림 형제들인 여러분들, 제게 그것을 증명할 성경구절을 제시해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인은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잘 보십시오. “그...” 이제 13절을 잘 보십시오.

...또 너희가 그분을 믿은 후에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119 에베소서 4:30을 펴 봅시다, 거긴 것 같은데요. 4:30을 찾아서, 그게 똑같은지 봅시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네, 여기 있군요, 4:30.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120 얼마나 오래요? 여러분이 정말로, 정말로 성령을 받았다면, 그게 얼마나 오래 지속된다구요? 다음 부흥 성회까지요, 할머니께서 여러분을 방문하실 때까지요, 상사가 여러분에게 소리를 지를 때까지요? 여러분의 구속의 날까지입니다! 할렐루야!

121 여러분이 죽고 나서,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된 후에, 여러분은 거기서 여러분이 사랑하던 사람들과 함께 서서 있을 때, 여러분은 여전히 성령으로 충만해 있을 겁니다. 성경! 여러분은 지금 현재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여러분은 또 다른 몸으로 이시간 겁니다. 여러분은 집을 바꾼 겁니다. 이 몸은 늙었고, 더 이상 지붕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서까래가 썩어 들어갔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옛것은 버리고 썩게 내버려두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갔습니다. 맞습니까? “이는 이 땅에 속한 장막이 무너지고 나면, 우리에게 새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122 여러분 며칠 전, 그것을 공부했던 거 생각나시죠? 어린 아이가 어머니의 태에서 생기게 되면 그 조그마한 근육들은 발로 차고 뛰고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엄마가 애를 낳고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맨 처음에, 그 조그마한 자연적인 몸을 받을 영적인 몸이 하나 있습니다. 어찌면 의사가 신생아에게 [브래넬 형제가 손뼉을 한 번 친다-주] 이렇게 때리면, 아니면 흔든다든가 하면, “응애, 응애, 응애”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즉시 자기 엄마의 젖이 있는 데로 얼굴을 돌리고는, “음, 음, 음”, 조그마한 머리를 엄마 젖에 이리저리 비비면서 유선에서 젖이 나오도록 합니다.

123 어린 송아지도 어미 소에서 나오자마자, 잠시 후에 무릎을 꿇고는 일어날 겁니다. 그게 무슨 일을 할까요? 곧바로 움직여서는 자기 엄마를 찾아서, 머리를 이리저리 흔들면서 젖을 먹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령습니다.

¹²⁴ 이 자연적인 몸이 태어나면, 그 몸을 기다리는 영적인 몸이 하나 있습니다.

¹²⁵ 이 자연적인 몸이 땅에 묻히면, 할렐루야, 저기에 기다리고 있는 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몸에서 저 몸으로 이사하는 것일 뿐, 우리의 거처를 바꿀 뿐입니다. 이 죽을 몸은 불멸의 몸, 이 영적인 몸을 입어야 합니다; 이 썩을 몸은 썩지 않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늙어서 주글주글 주름지고 굵은 몸은, 그래도 겉모습은 바꾸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이나 하면 거기에 가게 되면, 여러분은 여전히 동일한 영을 가지게 될 겁니다.(Eng. p. 122)

¹²⁶ 여러분에게 좀 억지처럼 들릴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도 그건 성경 말씀입니다, 다음에는 여러분에게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늙은 사울이, 왕이죠, 그때 그 늙고, 덩치가 크고 늙은 교파의 목사는 거기서, 아시죠,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커서 그들의 머리 위로 올라왔었죠, 그런데 무서워했고,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와서 어린 양을 사자의 입에서 구출해야 했고,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를 지켜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져서, 이 홀리롤러(holy-roller) 목사를 싫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를 위해 주고, 도우려고 노력하지는 않고 그를 배척했습니다. 꼭 그런 그림이 아닙니까, 꼭 그런 장면이죠. 다윗을 떠났습니다!

¹²⁷ 제가 첫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떠나기 전에 여기서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설교했었던 걸 몇 분이나 기억하십니까? 옛날부터 계속 이곳에 나오는 분 중에는 많이, 몇 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다시 이것을 전하고 떠날 예정입니다. 지난 주 일요일에 제가 어떤 말씀을 했나 기억하십니까? 이제는 다른 단계로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두 번째 출정, 그의 사역의 두 번째 단계로. 정확히 꼭 같습니다. 이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제 사역은 더 큰 단계로 나아갑니다, 더 큰 단계로, 더 위대한 사역으로.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오, 하나님은 다윗이 거기서 나가서 사자를 죽이게 하시고, 보세요, 꿈

을 죽이게 하시고, 다음에는 그 필리스티아인을 죽이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늙은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하게 하셨을 때에, 무엇을 하게 하려고? 다윗을 미워하게 하려고. 제가 믿기로는...

¹²⁸ 자, **이 테이프들은**. 자, 들어 보십시오, 이 설교 테이프를 들으시는 형제님들, 제 생각에 찬성하지 않으신다면, 절 용서하십시오. 네, 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는 어쨌거나 여러분을 그곳에 가서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전 여러분을 결국에는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기에게는 없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¹²⁹ 조그마한 “붉은,” 몸집이 작은, 성경은 다윗이 “붉은” 피부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건 그다지 아름다운 아이가 아닙니다, “붉다”는 건 좀 작은 체구를 가진 그런 아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거기로 나갔고, 사울은, 세상에,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입었는데, 방패가 다윗의 발끝까지 폭 내려왔으리라고 상상해 봅시다. 그래서 다윗은, “이 걸 벗겨주세요 나는-나는....”하고 말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박사 학위나, 철학 박사나 법학 박사 학위나 뭐 그런 것을 주었을 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다윗은, “난 그런 것은 하나도 몰라요, 그것을 증명할 수 없으니까. 제가 잘한다고 아는 이 일로 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는 물매를 쥐었습니다.

¹³⁰ 사람들은 다윗을 화가 나게 했는데, 딸들이, 교회들이, 교회들이, “사울은 천 명을 죽일 지 몰라도, 다윗은 만 명을 죽였도다.”고 노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¹³¹ 그래서 사울은 질투가 났습니다, “그건 옛날 예수 이름 무리야,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사울에게 악령을 보내셨습니다,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죠, 그는 아무 까닭 없이 다윗을 미워했습니다.(Eng. p. 123)

¹³² 다윗은 몇 차례나 사울의 목을 비틀 수도 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결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다가가 사울의 겹옷 단을 잘라서, 어느 날 밤, 돌아와서는, “여길 보십시오, 보이시죠!”하고 말했습니다. 네, 다윗은 그럴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내버려두었습니다. 다윗은 원한다면 백성을 나눠서 자기에게 속한 조직을 시작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니다, 그냥 사울을 내버려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¹³³ 그래서 나가서 그 출정이 끝났을 때, 사울은 하나님께 아무 응답도 받을 수 없고 악령이 임했습니다. 잠시 후에...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늙은 사무엘은, 그들이 거절한 선지자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사무엘이었고, 그들이 세상과 똑같이 행동하기를 원하기 전부터 그들에게 말하던 사람입니다.

¹³⁴ 교회가 어떻게 세상과 똑같이 행하고 싶어합니까? 어쨌서, 침례받은 오순절 교인이, 성령을 체험한 감리교인이, 침례교인이, 장로교인이 세상과 똑같이 행동하기를 원합니까? 왜 그러죠? 모르겠습니다.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 포커 놀이는 너무나 재미있어요, 재미 삼아 잠깐만, 패를 돌리기 전에 태우는 돈은 얼마 안돼요,” 그 돈을 뭐라고 부르는 건지 모르지만.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집안에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맥주 한 잔** 정도 하는 건 괜찮아요. 우리는 조금밖에 안 마셔요. 저와 아내는 오후에 몇 잔 마시죠.” 그거 아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몇 잔 마시게 됩니다.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¹³⁵ 여자분들, 흠, 마귀는 어떻게 하면... 태초에 마귀가 한 일이 그겁니다, 지금까지 마귀는 정말로 여러분들 자매님을 과녁으로 삼았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마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남자보다 여자를 천 배는 빨리 속일 수 있습니다. 전 이 말이 여러분들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는 걸 압니다, 그래도 그건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바로 그 일을 행한 겁니다. 마귀는 할 수... 자, 이브는 정직했고, 진지했지만, 속아넘어갔습니다. “아담이 속은 게 아니라...” 하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아담은 속지 않았습니니다, 이브가 속았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자를 속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목사님들은 나가서 **여자 목사들**을 임명하고, 그렇게 회중들을 담임하게

하는데, 이 일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정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은 일이에요. 그들은... 그들도 똑같이 설교를 잘 합니다.”하고 말할 겁니다. 저도 그걸 압니다.

¹³⁶ 한 번은 어떤 분이 방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계속 설교했습니다. 제가 밖으로 나가자, 어떤 여자가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일 밤 너의 아빠가 강대상으로 가실 때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부인?”하고 말했답니다.

¹³⁷ 그 날 밤 준비가 되었을 때, 저는 제단으로 나오라고 부르려고 할 때, 그 여자는 머리를 위로 다 올리고 스타킹 같은 것을 쓰고, 준비를 하더니만, 강대상 가운데로 뛰어 올라와서는, 펄쩍펄쩍 뛰더니, (Eng. p. 124)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저는 계속 설교를 했고, 제단으로 나오라고 초청했습니다. 제가 볼 때, 그건 올바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어, 성경은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의 영들은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강대상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땐, 하나님이 말씀하게 두십시오. 바울은, “뭔가가 다른 사람에게 계시되면, 먼저 하던 사람은 그 사람이 끝낼 때까지는 조용히 하라.” 했습니다. 맞습니다.

¹³⁸ 자, 제가 밖에 나갔을 때, 이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형제님은 오늘 밤 성령을 슬쁘게 했습니다.”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뭐가요? 제가 어떻게 했는데요?”하고 물었습니다.

¹³⁹ “그 자매가 그 메시지를 말했을 때요, 할렐루야, 그 말을 했을 때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전 설교 중이었습니다. 그 자매님이 질서를 깨뜨린 겁니다.”하고 말했습니다.

¹⁴⁰ “오, 그건 보좌에서 신선하게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형제님이 설교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신선한 거였어요.”하고 말했습니다. 허 참!

¹⁴¹ 그 행동은 말하지만, 여러분을 아끼니까 하는 말입니다, 정신 이상이거나 존중하지 않는 마음이나 토끼가 눈 올 때 신는 신발을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무식한 가르침 때문에 나온 행동입니다. 자, 어리석은 말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곳은 농담할 장소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제가 한 말은 정말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혼란의 창시자가 아님을 아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화평의 창시자이십니다. 성경을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이 아는 것이라곤 펠쩍펠쩍 뛰고, 방언으로 말하고, “난 성령을 받았어요. 할렐루야!”하고 말할 뿐입니다.

¹⁴² 아프리카에 갔을 때, 저는 마법사들이, 한 번에 오천 명이 모여 있는데서; 펠쩍펠쩍 뛰면서, 피로 뒤범벅된 얼굴로 방언을 말하면서 해골에서 나오는 피를 마시고; 마귀를 부르면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서서 봤습니다.

¹⁴³ 그래도 방언으로 말하는 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지만 그건 성령을 받은 무오한 증거는 아닙니다. 지금 그걸 말씀드리죠. 저는 정말로 모든 영감을 받은 성도는 방언으로 말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영감을 받게 되면 여러분이 방언으로 말할 때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는 징표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때가 있고, 그 사람이, 여러분이 바로 나가서, 오십 명의 목사들이 이미 기도해 준, 암을 앓고 있는 어린 아이에게 안수하고, 그 어머니가 그 아이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낫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므로, 그녀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걸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많이 봤고 그게 사실임을 압니다. 하지만 일어난 일은, 교회를 질서 위에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질서를 세웁니다.

¹⁴⁴ 자 앞으로 나가기 전에 이 절의 끝까지 봅시다.

...너희가 그분을 믿은 후에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Eng. p. 125)

145 “인(seal)!” 인이 뭐죠? 인이 뭐죠? 인이란, 어떤 일이 완료되었음을 보여 주는 겁니다, 종결된 일을. 다음에는 인은 소유권을 보여 줍니다. 다음에 인은 보장을, 그것을 유지하는 것을 보여 줍니다.

146 예를 들어, 저는 펜실베이니아 철도 회사에서 일했었습니다. 철도에서 아버지와 함께 일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객차에 적재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 운송 회사에서 칸을 집어넣는 일을 했습니다, 여기에 몇 개를 올려놓고, 여기에 몇 개를 내려놓고, 여기 이 쪽으로는 몇 개를 쌓고. 하지만 그 객차가 봉해지기 전에, 검사관이 거기를 다 훑어보고, 그것을 밀기도 하고, 이쪽으로 밀쳐보기도 하고, 저 쪽 것을 흔들어보기도 하였습니다. “아! 불합격! 도착지에 닿기도 전에 다 부서져 버리겠군. 불합격! 다 꺼내요. 다시 쌓으세요.” 할겁니다. 검사관이 객차를 불량하다고 결정했습니다.

147 성령께서 그 검사관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조금 흔들어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덜커덩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습니까? “나는 그 오래된 예수 이름 같은 건 안 믿어.” 불합격! 여러분은 덜커덩댁니다, 그렇죠. “난 하나님이 병을 고치신다고는 안 믿어.” 여전히 덜커덩댁니다. 그런 것들은 빼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동일하심을 믿습니까? “어, 조금은.” 여러분은 덜커덩대는 겁니다. 그것을 걸어서 버리십시오, 아시겠죠,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은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148 형제님, 그게 “아멘”하고 말할 준비가 되었을 때.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모든 일이 완료되었습니까? “아멘.” 그러면 검사관이 무슨 일을 하죠? 모든 것이 다 딱딱 정연하게 적재되었고, 복음으로 충만합니다. 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좋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나는 모든 말씀을 믿어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병을 고치신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은 예나 지금이나 실재하는 분임을 믿습니까? “아멘.” 바울에게 임했던 동일한 영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와 같이 우리에게도 임해

서 동일한 일들을 하게 한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 오, 오, 차가 콕콕 채워져 있습니다. 자, 점점 채워져 갑니다, 우리는 이제 문을 닫아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149 그러면 검사관이 문을 닫습니다. 그가 뭘 하죠? 그 위에 인을 찍습니다. 그가 거리로 내려가 이런 플라이어같은 작은 것을 가져와 이 조그마한 것 위에 대고는 인을 칩니다. 여러분 그 인을 떼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그 객차의 종착지가 보스턴이라면, 그 인은 떼어질 수 없습니다. 그 차가 보스턴에 도착할 때까지는 그 인을 떼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겁니다.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인을 뿔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 뿔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어느 어느 철도 회사의 소유입니다. 그것은 그 회사의 인입니다. 그건 이 차가 적재가 되었고, 이 차가 준비 완료되었다는 그들의 보증입니다. 그건 그 회사 것입니다. 그들은 펜실베이니아 회사에 B & O 회사 객차를 연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인을 받아야 하고, 인침을 받으면.

150 그리스도인이 복음으로 콕 차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차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그 사람 안에 있으면, (Eng. p. 126)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고, 기꺼이 자기 위치에 배치 받고자 하고, 성령께서 하라고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모든 세상 것들로부터 성결케 되어 있고, 빛이 오는 대로 그 빛 가운데서 행하며 전진하는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서 세상의 문을 닫아 버리고, 세상은 다 그렇게 걷어차시고 그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십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종착지까지. 선로에서 그를 내리게 해서 열어보고는 다시 모든 게 다 괜찮은지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괜찮으니까, 그대로 두십시오. 검사관이 이미 다 검사했으니까요. 언제까지 인침을 받죠? 여러분의 구속의 날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인침을 받은 겁니다.

151 “브래넬 형제님, 형제님이 돌아가시면, 죽은 후에 형제님은 여전히 성령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원히 성령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생명이 어디서 시작되죠? 제단에서 시작됩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어떤 그림자 한 조각을 봅니다. 그건 그림자입니다, 성령의 인이죠. 그 다음에 그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자의 그림자의 그림자

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이 그 그림자들을 계속 통과 해서 습기에 이릅니다, 습기에서 쭈뼛 흐르는 시냇물로, 시냇물에서 계곡으로, 계곡에서 강으로, 강에서 대양으로,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랑의 대양으로 이릅니다. 여러분은 동일한 사람일뿐입니다.

¹⁵² 여길 보세요. 늙은 사울은, 타락한 사울은, 그는 하나님께 밀착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구원을 잃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 밖에 났습니다. 그래서, 형제님들, 제가, “여러분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명심하십시오, 사울은 그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던 것이고, 아실 것은, 그는 의견이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어찌면 제가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했나 봅니다. 좋습니다, 그저 오늘밤 행복한 회중들에게만 말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아실 것은, 오, 세상에, 다음엔... 그는... 사울은 우림 톱뿔에 나아갔습니다.

¹⁵³ 우림 톱뿔이 뭔지 아시죠, 그건 아론이 입었던 예복의 흉배였습니다. 그건 항상, 하나님은 항상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셨습니다. 선지자가 예언하면, 그 신비한 빛들이 그 우림 톱뿔에 빛나지 않으면, 그는 잘못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꿈꾸는 자가 자기 꿈을 말했는데 우림 톱뿔에 빛이 나지 않으면, 그 꿈이 아무리 솔깃하게 들린다고 해도, 그 꿈은 잘못된 꿈이었습니다. 맞습니다.

¹⁵⁴ 여러분이 박사 학위를 몇 개나 소지하고 있고 여러분의 조직이 얼마나 큰 조직이든지 전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언하거나 설교할 때,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여러분은 잘못된 겁니다, 형제님. 여러분은... 이 것이 하나님의 우림 톱뿔입니다. 여러분이 창세 전에 예정을 받지 않았다고 말할 때, 우림 톱뿔은 빛을 내지 않을 겁니다, 성경이 여러분이 그렇게 예정되었다고 했으니까요. 여러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 우림 톱뿔은 빛을 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아무도 그런 식으로 침례 받지 않았으니까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받았습니다. 그것은 빛을 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뭔가가 잘못된 겁니다.(Eng. p. 127)

¹⁵⁵ 그래서 우림 톱뿔은 늙은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

고 사울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멀어졌기에 꿈도 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울은 신접한 여자에게 내려갔습니다, 이 늙은 신접한 여자는, 그 늙은 마귀 술사, 마법사. 사울은, “점을 칠 수 있는가?”하고 물었습니다.

156 그 여자는, “네, 하지만 사울은 점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이리라고 말했습니다.”하고 말했습니다.

157 보병처럼 변장한 사울은,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를 위해서 예언하고 내게 죽은 자들의 세상에서 죽은 자들을 여기로 불러 올리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게 사무엘 선지자의 영을 불러 올리라.”

158 그 여자는 예언하려고 들어갔습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 했을 때, 그녀는 옳드리고, “신들이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하고 말했습니다. 네, 그 여자는 이교도였습니다, “신들,” 두 세 신, 마치 아버지, 아들, 성령 뭐 그런 것, 아시죠. 그녀는, “신들이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하고 말했습니다.

159 말하길, “말해 보라. 그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160 “그는 야위었고 어깨에 외투를 들렀습니다.”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161 사울은, “그건 사무엘이다. 그를 이 방 안으로, 내 앞에 그를 여기로 불러 올리라.”하고 말했습니다.

162 사무엘은 사울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원수된 사람이 되었으면서, 왜 나를 불렀느냐?”하고 말했습니다. 잘 지켜보십시오. 그는 여전히 사무엘이었을 뿐 아니라, 그는 여전히 예언의 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잘못된 일이라면, 누구나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도록 하십시오. 그건 진리입니다! 그는 여전히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말하길, 그는 예언하며 말했습니다, “내일 싸움은 너에게는 불리한 싸움일

것이고, 너와 너의 아들들은 내일 싸움에서 쓰러지리라, 내일 밤 이 맘 때 나와 함께 있으리라.” 맞습니까? 사무엘은 여전히 선지자였습니다!

¹⁶³ 좋습니다. 이제는 마법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씀드리죠. 어느 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고, 산 꼭대기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배치하시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던 것이... 수요일 저녁에, 아들을 배치하는 것 말입니다. 그들이 거기 있었을 때, 주위를 둘러보니까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얘기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흰색 깃발이 떠다니는, 아니 조그마한 흰색 구름이 떠다니는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사람이었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무덤이 어딘지 모르지만 팔백 년 전에 장사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오백 년 전에 불 마차를 타고 본향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사람 다 실제로 살아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살아서, 거기 서서 주님께서 갈보리로 가시기 전에 주님께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은 겁니다!”(Eng. p. 128)

¹⁶⁴ 서두르겠습니다, 늦었기 때문에 마치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오 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배경을 알기 위해서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너희...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 분을 신뢰하였으니...**

¹⁶⁵ 자 명심하십시오, 그들이 어떤 구원을 가졌죠? 이들은-이들은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 보십시오, 여러분 고린도인들을 보셨습니까? 바울은 항상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한 사람은 방언을, 한 사람은 방언을 하고, 한 사람은 찬송시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예언을 하고, 한 사람은...” 아 시겠죠, 바울은 그들에게 아무 것도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이거, 저거, 저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에베소인들도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질서 가운데 행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말씀을 전혀 가르치지 않았고, 가르칠

수도 없었습니다, 교회가 그런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질서 정연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진짜 것을 가르쳤습니다.

너희의 구원: 그 분 안에서 ...또 너희가 그분을
 믿은 후에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
 라.

이는 보증이 되사 (이것을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
 습니다)... 값 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휴!

166 성령이 뭐죠? 자, 제가 여러분이 조금만 참아주신다면 그 말씀의
 나머지를 아주 빨리 읽겠습니다. 마이크 형제님,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어디까지 보았었죠? 우리가 다 같이 즐거워하고, 모든 것이 평화인 곳,
 그것은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쪽으로 오실 때마다, 여
 러분은 조금씩 밑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지죠. 여러분이 한 걸음씩 뿔 때
 마다, 여러분은 몇 인치씩 더 가까워집니다. 땅으로 내려가면, 여러분은
 그림자의 그림자의 그림자의 그림자를 가집니다. 자, 그만큼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하지만, 오, 여러분은 뭔가
 를 갈망합니다.

167 오, 나이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러지... 저는 열 다섯이나 스무
 살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오, 뭐든지 다 주고서라도. 그래도 그게
 제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열 다섯 살인데 오늘밤에 죽을 수
 도 있습니다. 불확실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 열 다섯 살인데, 여
 러분이 집에 돌아 왔는데 여러분의 어머니가 살아 계실지 돌아 가셨을
 지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실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스무 살이라면, 여러분이 완벽한 건강을 유지하며 내일도 살
 아 있으리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통 사고가 나서
 즉사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불확실한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확실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
 러분은 그걸 갈구하죠. 그게 뭐죠? 여러분에게 그것을 갈구하게 만드는
 것은 저 위 거기에 있는 그것입니다.

168 자, 여러분이 이것 안으로 걸어 들어가면, 그때는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성령은 “보증”입니다.

169 어떤 물건에 대한 보증금이 뭐죠? 제가 차를 한 대 사려고 여러분에게 간다면, 제가, “그 차는 얼마죠?”하고 물을 겁니다. (Eng. p. 129)

170 여러분은, “브래넘 형제님, 이 차는 삼 천 달러입니다.” 하시겠죠.

“계약금은 얼마죠?”

“음, 오백 불에 해 드리죠.” 하실 겁니다.

171 “좋아요, 여기 오백 불이 있습니다. 잔금은 다음에,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지불하겠습니다. 저 차는 팔지 말고 두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백 달러를 지불할 겁니다, 그건 계약금입니다. 맞습니까?

172 자, 그것을 잘 보세요, 그건 “보증,”입니다, 그건 “계약금”입니다.

너희가 약속의 성령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
침을 받은 후에... 인침을 받은 후에...

이는(약속의 인이, 약속의 성령이 뭐죠?) 값 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
이 되사...

173 그게 뭐니까? 그건 계약금입니다. 자, 형제님, 오, 오, 오, 오, 오, 목사님들! 이게 계약금이라면, 우리가 다 거기에 가게 되면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이게 만일... 지금도 이렇게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너무나 기뻐서... 제가 봤는데 구십 되신 남자분들이...

174 어느 날 밤 제가 본 한 나이든 설교자는 나와서, 그는 말하길... 이렇게, 그는 강대상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속으로 저는, “저렇게 나이 든 분이 설교를 할 거라구?”하고 생각했습니다.

175 그는, “주를 송축할지이다.”하고 말했습니다. 나이든 흑인 남자분이었고, 낡고 긴 목사들이 입을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176 저는, “왜 젊은 목사들더러 설교하게 하지 않을까? 저런 노인이, 어떻게 저 노인이 설교를 할 수 있나?”하고 생각했습니다.

177 그는, “어, 형제님들, 오늘 저는 하루 종일 형제님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다들 예수께서 땅에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하늘에서 행하신 일이 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밤 본문 말씀은 욥기 7:27 말씀에서 뽑았습니다.”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훨씬 이전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실 때 새벽별들 함께 노래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쳤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거 아시죠, 거기에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시는지...” 그는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재림에 대해서 수평의 무지개로 펼쳐 보여 주었습니다. 그때쯤, 성령이 그를 쳤습니다. 자, 사람들은 그 노인을 부축해서 밖으로 나오게 해야 했습니다, 그분은 아흔 다섯 살이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허리가 굽고,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동그란 원으로 테두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시죠, 이렇게. 거기로 나와서 그는 설교를 시작했는데, “우우! 할렐루야! 영광을!”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렇게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오, 여긴 좁아서 설교하기가 불편하군.” 하셨습니다. 코트를 벗으시고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더니, 있는 힘껏. 자 그건 보증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오!(Eng. p. 130)

178 성령이 무슨 일을 하죠? 오, 여기에 좋은 구절이 있군요, 제가 다음 장의 1절을 읽겠습니다. 읽을까요? 괜찮겠습니까? “아멘.”해 보십시오. [회중이 “아멘!”한다-주] 좋습니다, 빨리, 2장 1절을 보죠. 들어보십시오.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179 “너희를 살리셨으니(quickened).” 살리셨다는 의미가 뭐죠? “소생케 한다”는 겁니다. 거의 죽었던 상태였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 보증금을 가지고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이 나머지 배당금을 다 받게 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 바울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다가 와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놓고) 가지고 계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도 당연하죠. 그때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말할 수 없고 영광으로 가득한 기쁨에 대해서 말해 보십시오! 휴! 음! 죄와 허물들로 죽었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림자들의 그림자의 그림자로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림자들의 그림자로 나와서 그 그림자 안으로 들어가면 어떠할까요, 그림자는 계곡 물이 되고, 계곡 물은 강으로, 강은 대양으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180 여러분이 구속을 받아서, 완전히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되고, 다시 완전히 젊은 남자, 또는 젊은 여자로 되돌아가고, 다시는 죽지 않을 거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땅을 내려다보고는, “저 포도와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다면, 어,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필요하지 않구나. 하지만 어느 날엔가 예수께서 오실 거야, 그래서 이 천사의 몸, 내가 살고 있는 이 피아피니의 몸은...”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더 이상은 여자의 태를 통해서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건 더 이상 성욕으로 인해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성욕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성욕이 없는 몸으로 부활될 겁니다, 어느 날 주께서는 부를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제가 한 때 살았던 몸은 영광스럽게된 몸 안으로 부활할 것이고, 저는 견고, 말하고, 살고, 즐기고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올 영원한 시대들을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휴! 형제님, 바로 그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181 “이 때문에 나 역시,” 하고 바울은 자기의 현재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절을 마저 읽고 나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때문에 나 역시, 너희 가운데서 너희 믿음을 들었으니(나는 너희가 이것을 믿는다는 걸 들었다, 너희가 정말로 예정과 영생과 구원과 그런 것들을 믿는다는 걸 들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으니

너희로 인하여 감사 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Eng. p. 131) (항상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은혜에서 은혜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으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전진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너희의 지성(understanding)의 눈을...

¹⁸² 흠! 아시다시피,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눈이 멀었고 눈 먼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기도할텐데 너희 지성의 눈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으로 이해합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한 겁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보기도 하지 않, 마음으로도 봅니다. 그렇다는 걸 아시죠. 좋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봅시다, 18절입니다.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 하심이...(휴! 사람들은 능력이 지나갔다고 말하죠? 그 능력은 아직 이르지도 않았습시다)...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분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를 믿으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퍼부어 주시라고 저는 방금 기도했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 천상에
 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름지
 어진 모든 이름...

183 오, 오, 오! 왜냐하면... 아뇨, 말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그
 것에 대해서 남은 시간에 다룰 수 있을 겁니다.

...이름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184 모든 이름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의 모든 이름이 무슨 이름을 가
 지게 된다고요? [회중이 “예수.”라고 말한다-주] 하늘 전체는 예수라고
 이름지어졌습니다. 교회 전체도 예수라고 이름지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라고 이름지어졌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가진 유일한 이름이었
 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호와라고 불렸습니다; 여호와이레, 주께서 예비
 하신 희생제물; 여호와라파, 여러분의 병을 고치시는 주님; 여호와, 주
 의 깃발, 뜨뜻세; 여호와, 다른 여호와 이름들. 그는 새벽별이라고 불렸
 습니다. 그는 아버지라고 불렸고, 아들이라고 불렸고, 성령이라고 불렸
 습니다. 그는 알파라 불렸고, 오메가라 불렸습니다, 시작이라고 불렸고,
 끝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가지라고 불렸습니다. 오, 그는... 그는 모든
 직함들로 불리지만, 이름은 하나입니다.

185 그는 마태가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나라를 가르치고, (Eng. p. 132) 그들을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
 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아
 버지는 이름이 아니고, 아들도 이름이 아니고, 성령도 이름이 아닙니다.
 그건 이름에 대한 직함입니다. 그건 한 분 하나님이 가진 세 가지 속성
 들의 이름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뭐였죠? 천사는 말하길, “너희는 그의
 이름을” [회중이 “예수라.”한다-주] “부르라. 이는 그가 그의 백성을 그
 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임이라.” 그래서 그들이 모두 다 성경에서 그
 런 식으로 침례를 베풀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망 이후 백

오십, 이백 년 뒤에 어거스틴(Augustine)이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국의 국왕에게 침례를 베풀었던 겁니다. 좋습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186 자, 제 몸이 모든 일들을 다스릴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제 몸은 저 자신입니다. 맞습니까? 그건 저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제 몸을 보시고 저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은 예수 안에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예수는 신격의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신 분이였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예수의 모든 것을, 교회 안에 퍼부으셨습니다. “내가 하는 이 일들을, 너희도 모든 일들을 행하라.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너희가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하셨습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187 오, 그 말씀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제가 아프리카에서 사역한 여행에 대해서 쓴 책을 읽었습니다. 이제까지 읽지 않고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아프리카를 방문하다 책을 읽으신 분? 그 책에 보면 제가 어떤 인도 소년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신 분 몇 분이냐 되십니까?

188 저는 어떤 복음전도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십 오 년 이상을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오신 분이었는데, “저는 제 평생 한 번도 그런 기적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는 두통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낫는 것은 봤습니다. 복통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낮는 것도 봤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뭔가가 창조되고 만들어지는 건...” 하고 말했습니다.

¹⁸⁹ 저는 그 사람이 거기에 서서 그것을 봐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인도 소년의 한 쪽 다리는 이 정도로 굽었습니다. 한 쪽 다리가. 다른 한 쪽 다리는 사람의 다리처럼 정상적인 다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가 착용한 브레이스를 보시면, 신발이 35 내지 37 센티미터쯤, 이렇게 높이 달려있었습니다. 그는 밑부분에는 철 접시 같은 것을 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은 두 개의 긴 막대기 위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서 있는 곳으로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그 위에다 올려다 주었습니다. 그는 두 개의 목발을 짚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커다란 철 신발을 신고는 그렇게 쿵쿵대면서 걸어왔습니다. 저는 그의 다리를 쳐다봤는데, 그건 이렇게 굽었습니다.(Eng. p. 133)

¹⁹⁰ 자, 그 사람들은 회교도인들입니다, 회교도들. 여러분 지난 일요일에 제가 그 신문들이 기사화한 것을 제가 읽어드렸던 걸 기억합니까? 저는 여기에 그 신문을 가지고 있는데, 선교사이신 스트릭커 형제님이 아프리카에서 돌아오셔서 제게 보낸 겁니다. 어떻게 빌리 그래함이 물러났는지를 쓴 기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회교도들이 자신들을 바다 속으로 밀어붙이게 허용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선교사들은 그 사역지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게 여지없이 두들겨 맞으면서.

¹⁹¹ 저는 빌리 그래함을 사랑하고, 그 분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빌리 그래함은 그를 “잠깐만요...”하고 말하면서 맞붙었어야 했습니다, 그들 제멋에 굳어져 있는 침례교인들이 그에게 허락만 했다면, 그는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빌리 그래함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가, “잠깐만! 저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약을 믿으시죠, 여러분은 예수께서 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죠. 제가 도전하겠는데 토론을 벌여 봅시다.” 하고 말했더라면. 진 마귀의 도전들을 받는 것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도전으로 물리쳤습니다, “당신과 내가 함께 붙어 봅시다. 나는 신학 박사요,” 하고 말했습니다. 빌리 그래함은 신학 박사입니다. “이렇게 도전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

스도였음을 여러분에게 증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병고치심에 대해서 말하자면, 저는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런 은사를 행하는 형제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여기로 데리고 오기를 원하신다면, 그들 중에는 오렐 로버츠나 그런 사람, 정말로 놀랄만한 위대한 사역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말했어야 합니다. 거기로 가서 일어난 일을 보고는, “기독교는 여러분이 생각하던 것이 아닙니다.”하고 말하도록.

¹⁹² 자 빌리 그래함이 물러나 그 사람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물론, 저는 마귀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준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마귀의 얼굴에 침을 뱉고는 그를 멀리 가 버립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쯤 되면... 빌리는 그 회교도를 그렇게 잡초같이 느끼도록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빌리는 성경을 가지고 이사야 9:6을 보면서, “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도다.’라고 말한 것은 누구에 관해서죠? 이사야가 말하고 있던 이 사람은 누구였죠? 이 선지자는 누구였죠? 장차 오실 이 메시야는 누구였죠? 이사야가 회교도에게서 그분을 어디서 말하고 있었는지 세계 보여 주시죠.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그걸 회교 안에 있다면 내게 보여 주시오. 그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찢어내었다’ 라는 등등’이라고 어떻게 외쳤습니까? 당신네 경전에서, 당신네 언약에서 그런 걸 내게 보여 주시오.”하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글썄, 빌리는 그 회교도를 완전히 목사발로 만들어 그가 어찌할지 모를 정도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¹⁹³ 하지만 그 신문은 전환하여, 상했던 제 마음을 기뻐 뛰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빌리는 뒤로 물러나 후진을 했어도, 회교도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었던 때는, 윌리엄 브래넘 목사(Eng. p. 134)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논쟁의 여지가 없는 기적들을 연거푸 행하고, 만 명의 회교도들이 한꺼번에 땅에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내놓았을 때이다.” 정말입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 정통주의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¹⁹⁴ 전에도 예수께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랍비여!” 그가 바리새인이었던 거 아시죠.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우리는 압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하시는 일들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아시죠, 고백한다면, 어,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쫓겨날 테니까요. 아시죠, 우리는 우리의 위신을 잃게 될 겁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¹⁹⁵ 그 회교도인인 소년은, 그가 거기에 서 있었을 때, 그의 사진은 책에 실려 있습니다. 사진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쪽 다리가 (한 35 센티미터는) 짧고, 그 철 신발을 신고 서 있었습니다. 그에게 말했습니다, “영어로 말할 줄 압니까?”

¹⁹⁶ “아뇨.” 영어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통역자는, “영어를 못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죠?” 통역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요.”

“그 다리를 움직일 수 있어요?”

“아뇨.”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나는 회교도입니다.”하고 대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게 해 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하시겠습니까?”하고 저는 말했습니다.

197 “나를 낮게 해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겠습니다.”

198 “그 다리를 다른 다리처럼 나오도록 낮게 해주신다면,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199 “어,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하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건 그 다음 겁니다; 모든 질문들은 응답을 받습니다. 마이크 형제님, 그게 제가 가진 느낌입니다. 저는 잠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지 보려고 잠깐 기다립니다. 저는 거기서 그가 그 벽들이 있는 걸을 가고,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회교도인 분들 중 몇 분이냐 영접하시겠습니까? 여기에 회교도인 소년이 있습니다, 그를 보십시오, 이 위에서 있죠. 의사인 분들, 그를 보고 싶으십니까? 그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하고 말했습니다. 오, 여러분은 그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압니다. 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위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여기에 그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200 저는, “애야, 이쪽으로 걸어보렴.”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사람에게 말했고, 제 쪽으로 그가 걸어옵니다. (“쿵, 쿵”) 저는, “30 내지 35 센티미터는 짧은 것 같죠. 그 정도.” 하고 말했습니다.

“네.”(Eng. p. 135)

201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낮게 할 수 있습니다. 회교를 믿으시는 여러분들 그걸 믿고 그분을 개인적인 구세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하고 물었습니다.

202 수 천 명의 검은 손들이 공중으로 올라갔습니다. “어, 주님, 지금이 때입니다.”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면, 지금 제 기도 응답하옵소서, 이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 건 아버지를 위한 겁니다. 이 소년을 낮게 하여 주시옵소서.”하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 소년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²⁰³ “신발을 벗어요.”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 귀를 의심한다는 듯이 바라봤습니다. 통역자가요. 저는, “신발을 벗어요.”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신발끈을 풀었습니다. 이미 그 환상을 봤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는 그것을 벗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풀고 제가 있는 곳으로 걸어오자, 두 다리가 정상이었고 두 다리는 마치 새 다리처럼 걸었습니다. 저는, “왔다 갔다 해보고 싶지요?” 하고 말했습니다.

²⁰⁴ 그는 왔다 갔다 걸으면서 울기 시작했고, 어쩔 줄을 몰라했습니다. 그렇게 걸으면서, 그는, “오 알라여! 알라여!”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저스(Jesus, 예수)! 지저스 하세요!”하고 말했습니다.

오, 오, 오, “오, 예수, 예수,” 그렇게. “예수! 예수”하고 소리쳤습니다.

“질문이 있나요, 질문이?” 하고 물었습니다

²⁰⁵ 줄리어스 스태드스클레브, 몇 분이나 그를 아시죠? 스태드스클레브 형제님이 여기 교회에 계신가요? 독일에 가셨답니다. 형제님이, “잠깐만요, 브래넘 형제님, 잠깐만요. 사진사를 빨리 불러오겠어요, 그 소년의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요?”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러시죠.”하고 말했습니다.

²⁰⁶ “여기로 걸어오세요, 여기에 신발을 세워주세요.” 그 소년은 그렇게 썼고, 거기서 그 소년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두 다리가 정상이고 곧은 그 소년을. 사진에는 그렇게, 그렇게 옛날에 신던 신발과 브레이스가 곁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²⁰⁷ 저는, “회교도이신 여러분 중에서 몇 분이나 이제는 모하멧이 선지자임을 부인하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를 여러분의 개인적인 구세주로 영접하십니까?”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만 명의 손이 공중으로 올라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원하지 않...

208 그들은 그것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홀리롤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시고, 그의 교회를 배치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이상 가게 크게, 풍성하게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전의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209 그래서, 지금 제가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말할 게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소중한 어린이 여러분, 여기 미국에 있는 여러분들이나 앞으로 해외에서, 어디에서든지 간에, 테이프를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어린이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일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창세 전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일이 다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바르게 지키시기 바랍니다.(Eng. p. 136)

210 명심하십시오, 이 숨이 끊어지고 나면,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젊은 분들, 또 어머니 되시는 분들,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린 아이들을 보게 될 때, 팔일이나 닷새만에 죽은 어린 딸아이라면, 그 애를 다시 만나게 될 때는 그 아이는 아름다운 젊은 여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저 연로한 할아버지는 어께가 완전히 굽으셨죠,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앞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할머니, 그는 젊고 멋진 스무 살 가량의 혈기 왕성한 청년이 될 겁니다. 그는 영원히 그런 식일 겁니다. 여러분은 그의 손을 만질 수도 있고, 그와 악수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를 껴안을 것이지만, 그는 여러분의 “남편”이 아니라 “형제”일 겁니다. 오, 세상에! 그는 “남편” 이상 가는 훨씬 좋은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사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랑하셨죠. 하지만 그건 필레오 사랑이었습니다; 아가페 사랑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그 진짜 신성한 사랑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 그제 어떤 것인지 그때 가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이것은 그저 지독한 악취 나는 쓰레기 더미 같은 겁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시도록 권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 건데요, 제-제-제 친구들이...

211 나중에 제가... 여러분 제가 나머지 두 장은 언젠가 다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는 쉬타쿠아에 가기 전에 조금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 저는 거기 집회에 가서는 이런 것들을 전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불... 너무나 다양한 신앙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교회만을 위한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저는 여기서 제가 원하는 대로 설교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곳은 저의 성막입니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자, 저는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오,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알면 얼마나 많이 걸어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알고 있다면, 아시죠, 비틀거리고 걸려 넘어지고 하는 대신에, 얼마나. 빛 가운데 서서 빛 가운데 걸어가고, 어느 길로 향하고 있는지 압시다.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212 지금 여기 계신 분 각자가 자기 위치에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주부에 불과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 여러분은, “브래넘 형제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전 대단한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목사도 아니고.” 하실 겁니다. 어, 하나님은 어쩌면 여러분을 이 땅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자녀들의 가족 중에서 또 다른 자녀들이 나오고 그들 중에서 수백 만 명의 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목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나왔어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어떤 목적을 위하여 왔습니다. 그걸 아셨습니까?

213 자, 여러분은,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은 이 흙덩이를 써레질하는 일 뿐입니다. 매일 저녁 데리고 나가서, 내 자식 새끼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 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신발도 신지 못한 불쌍한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앉아서 울었습니다. 낡은 마차를 하나 가지고 있었고, 저희 부부는 교회에 나갔습니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걱정 마십시오, 형제님.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지내십시오, 계속 그대로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닐 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목사가 될 사람의 증조부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214 멜키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가 누구였는지 볼까요?)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 십일조를 바친 것으로 쳐 주셨다는 것을 아셨습니까?(Eng. p. 137) 그걸 아시는 분? 어디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레위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였습니다; 레위는 그의 증조부의 허리에, 씨 안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레위가 멜키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친 것으로 치고 있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형제님! 오! 저는...

215 예전에 영국에서 집회를 할 때 어느 날 저녁 한 영국인이 회심을 했는데, 그는, “나는 너무나 기뻐요 [브래넘 형제가 happy의 영국 발음을 흉내냄-주]! 나는 너무 기뻐요!”하고 말했습니다.

216 네,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알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언젠가 영광스러운 날이 오면, 저는 그 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것이 환상이었다면, 저는 여기에 있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테이프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제가 환상 가운데 있었는지 아니면 영 안에서 끌려갔었는지, 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네빌 형제님을 잡는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똑같이 생생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볼 수도 있었고 그들에게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제 첫 번째 아내가 서 있었는데, 그녀는 “내 남편”이라고 소리쳐 부르지 않았고, “나의 사랑하는 형제여”하고 말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제가 함께 놀러 다니던 한 소녀도 서 있었습니다.

217 어찌면 그녀를 아는 사람들 중 몇 명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유틀카에 살던 엘리스 루이스인데, 그녀는 아주 훌륭하고 귀감이 되는 그리스도인 소녀였습니다. 조금 늦게 결혼을 했고, 첫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엘리스 루이스, 저는 그녀를 보기 위해서 장의사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그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거기로 걸어 들어갔고,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 부인이 있습니까?”하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의 성은 에머키였습니다. 그녀는 훌륭한 그리스도인 청년과 결혼했고, 그녀는 훌륭한 그

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같이 여기 저기 다니면서 많은 일을 같이 했습니다. 어릴 때죠, 열 여덟, 열 아홉 살이었을 때, 여기 저기 다니면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녀를 생각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상(像)과 결부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와 같이 다니길 원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갔을 때... 그녀의 남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고, 진짜 남자였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고, 신문에서 부고를 보았었습니다. 저는 내려갔고 그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거기 쿠츠에게 갔고, “에머키 부인을 모시고 있나요?”하고 물었습니다.

쿠츠는 “빌리, 그녀는 저기 저 방 안에 있어.”하고 말했습니다.

218 저는 그리로 들어가 관 옆에 섰습니다. 저는, “앨리스, 나는 가장 어두운 땅굴에도 가봤고, 어두운 길들도 걸어 왔어. 너와 나는 함께 여러 길들을 걸었고 저 아래 강 옆에서, 그들이 낚은 연예선(showboat)을 가져오곤 했었을 때, 우리는 거기 앉아서 그 증기 오르간을 연주하는 것을 들곤 했었지. 그 길들을 오르락내리락거리곤 했어, 너는 정말로 훌륭한 숙녀였어! 하나님께 너의 삶을 감사 드려. 사랑하는 자매여,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서 편안히 쉬기를.”하고 말했습니다.

219 전에 그 환상 가운데서, 그녀도 제게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복 받은 나의 형제여,”하고 말하며 절 껴안았습니다. 오, 오, 형제님과 자매님, 그 환상은 절 변하게 했습니다.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생생합니다! 얼마나 생생하냐면요, (Eng. p. 138) 지금 제가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그 정도로 생생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두려움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밤이 끝나기 전에 죽을지도 모릅니다.

220 저는 저 뒤에 있는 제 어린 아들을 키우고 싶습니다, 조셉을. 저는 그 애가 설교단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때 저는 이 성경을...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젊은이로 설교단에서 설교하는 조셉을 보고싶어. 저는 그 애가 선지자일거라고 믿습니다. 그 애가 태어나기 육 년 전에 그를 보았을 때, 여러분 제가 그 애가 태어날 것을 말씀드리던 거 기억하시죠. 제가 제단 곁에서, 제가 말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봉헌하면서, “조셉, 너는 선지자이다.”하

고 말했던 거 생각나십니까.

²²¹ 며칠 전 마당에서 서 있는데, 조셉이 들어오더니, “아빠, 예수님도 아빠 손 같은 손을 가지셨어요?”하고 물었습니다.

“어, 그렇지. 왜 그러니?”하고 물었습니다.

²²² 그는, “사라를 기다리면서 자전거에 앉아 있었거든요,” (사라는 그의 누나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거기 앉아 있었답니다. 저는 그 애가 길로 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앉아 있었답니다. 말하길, “제가 하늘을 쳐다봤는데요, 아빠 손 같은 한 손이 있었고, 흰옷을 입은 한 팔이 머리 위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위로 올라갔어요.” 말하길, “그건 예수님의 손이 올라간 거였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애 엄마를 쳐다봤고, 그녀는 나를 쳐다봤습니다. 우리는 우즈 부인 맥으로 갔습니다. 그녀가 이 곳에 어딘가에 게실 겁니다. 우리는 조셉에게 이리 저리 유도 심문을 했고, 우리가 아는 갖은 방법으로. 그것은 환상이었습니다. 그는 그걸 보았습니다. 제가 어린 조셉이 서 있는 때를 볼 수 있다면... 저는 예수께서 지체하신다면, 그 애가 결혼하는 것을 볼 때까지 살고 싶습니다.

²²³ 저는 나이가 들었고, 흰 머리카락이 목에까지 내려왔습니다. 저는 보내... 제가 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께 이삼 백만 명의 혼을 더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이 땅의 구석구석까지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때가 오는 것을 볼 수 있을 때까지, 마이크 형제님.

²²⁴ 애들 엄마인 미다, 나는 그 때를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녀를 제 아내를 부르고, 아시겠죠, 그녀는... 우리는 늙어가고 있고, 아내의 머리가 희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늙어가고, 쇠잔해 가는 것을 봅니다.

²²⁵ 리베카, 전 리베카 때문에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 선생님이 간밤에, “세상에, 리베카가 그렇게 계속하면, 브래넘 형제님, 그녀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말하기가 어려워요.”하

고 말했습니다. 아시겠죠, 음악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리베카는, 저는... 저는 **사라**는 오르간을, **베키**는 피아노를 연주하고, **조셉**은 설교를 하였으면 합니다.

²²⁶ 그런 일을 보게 된다면, 저와 아들 엄마는 비틀거리며 들어오고, 저는 지팡이를 짚고, 어느 날 밤 저 길에서 내려와서, 안을 들여다보니, 제 아들이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고, 이 똑같은 복음을 설교하고 서 있는 것을 본다면. 저는 이 낡은 성경책을 건네 주면서, “아들아, 이 거 받아라, 이제는 네가 가져라. 너는 그 말씀을 고수하고, 한 말씀이라도 타협하지 말아라.(Eng. p. 139) **애야**, 그 말씀 편에 서거라. 절대로, 신경 쓰지, 누가 너를 대적한다고 해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네 편이실 거니까. 너는 그 성경책에 기록된 그대로 모든 말씀을 전파해라, 아빠는 저 강 건너편에서 널 보고 있을 거다.” 저는 아내를 두 팔로 안고 저 요단 강을 건너고 싶습니다.


²²⁷ 그 때까지, 하나님, 제가 충실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소서! 그렇게 해 주소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얼마나 많은, 제가 뭘 하든, 이런 일, 저런 일, 무슨 일을 하게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저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진실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날이 와서, 거기로 건너가게 되면, 건너다보면서, “됐다. 오, 나의 귀한 친구여, 나의 귀한 형제여, 나의 귀한 자매여”하고 말할 수 있게 하소서.

²²⁸ **젊은 목사되는 분**, 선교지로 들어오셔서 채비를 갖추고 계십시오. 젊은 목사님들 모두, 눌러 앉아 있지만 마십시오. 앉아서 빈둥거리고 있지 마십시오. 밖으로 나가서 혼을 구하십시오. 뭔가 하십시오! 나가서, 움직이십시오. 거기 앉아 계시는 젊은 목사님,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형제님의 마음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²²⁹ 그는 제게 제가 저 나이였을 때를 상기시킵니다, 어쩌면 저 분보다 제가 조금 어렸을 때입니다. 제가 저기에 모퉁잇돌(초석)을 놓았을 때는 스물 몇 살밖에 안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푸른 코트에 흰 색 바지를 입고 삼십 일 년 전에 거기 서서 그 모퉁잇돌을 놓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렸었는지 아시겠죠, 저는 청년이었습니다. 거기에 서서, 그 초석을 놓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말씀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니다. 저는 그 초

석을 놓은 그대로 그 말씀을 지켜왔습니다. 거기에는 저의 간증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책의 속지에 적어놓은 것을 찢어내서 그 초석 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는 여전히 그 안에 놓여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의 페이지에 그것이 쓰여져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끝까지 진실을 지키게 하소서.

잠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할까요.

²³⁰ 오늘 밤 마치면서, 이, 충분히 마치지 못한 이 한 장(章)을 마치면서. 여러분은 다른 장도 보셔야, 그가 어떻게 교회를 그 자리에 배치하는 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중에 여러분에게 그것을 가지고 전하겠습니다. 제가 쉬타쿠아에 가기 전에 저는 휴식을 좀 취해야 합니다, 거기서 대 집회를 열고, 그 다음에는 오클라호마로 건너가야 합니다. 

목 차

입 양, 제 1 부.....	1
-----------------	---

에베소서는 여호수아와 유사하다,
테이프 번호 60-0515E
1960년 5월 15일, 일요일 저녁

입 양, 제 2 부.....	37
-----------------	----

하나님의 표명된 아들들, 테이프 번호 60-0518
1960년 5월 18일, 수요일 저녁

입 양, 제 3 부.....	99
-----------------	----

그리스도 안에서의 위치, 테이프 번호 60-0522M
1960년 5월 22일, 일요일 오전

입 양, 제 4 부.....	159
-----------------	-----

입 양, 테이프 번호 60-0522E
1960년 5월 22일, 일요일 저녁

이 메시지들은 원래 미국 인디애나 주 제퍼슨빌에 있는 브래넘 성막에서 윌리엄 매리언 브래넘 형제가 영어로 전한 설교들입니다. 마그네틱 테이프에 녹음된 메시지를 정확하게 옮겨 출판하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였고, 미국에 있는 Voice of God Recordings사가 출판, 배포합니다.

VOICE OF GOD RECORDINGS

P. O. Box 950, Jeffersonville, Indiana 47131 U.S.A.

Copyright notice

All rights reserved. This book may be printed on a home printer for personal use or to be given out, free of charge, as a tool to spread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is book cannot be sold, reproduced on a large scale, posted on a website,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translated into other languages, or used for soliciting funds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Voice Of God Recordings®.

For more information or for other available material, please contact:

VOICE OF GOD RECORDINGS
P.O. Box 950, JEFFERSONVILLE, INDIANA 47131 U.S.A.
www.branham.org